

# 2021년 충청북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요약본

2022. 03.



충북문화재단  
Chungbuk Cultural Foundation



제 출 문

충북문화재단 귀중

본 보고서를 『2021년 충청북도 예술인 실태조사』의 최종보고서 요약본으로 제출합니다.

2022. 03

## 참여 기관 및 연구진

---

주관기관 : 충북문화재단

조사기관 : (주)엔알에스

- 사업 총괄 : 김장호
- 실무 총괄 : 이평성
- 연구 부문 : 남영식, 김혜성
- 실사 부문 : 김진원, 김민철
- 전산 부문 : 김지연

공동연구진

- 홍익대학교 예술경영학과 겸임교수 : 이경호
- 조안나 박사(실용음악)

## [목 차]

제1장 서론 .....	1
1. 조사 배경 및 목적 .....	1
2. 조사 개요 .....	1
가. 예술인의 의의 .....	1
나. 예술 분야 분류체계 .....	2
다. 조사 범위 .....	3
라. 조사 기간 .....	3
3. 조사 설계 .....	4
가. 목표 모집단 .....	4
나. 조사 모집단 .....	5
다. 목표 표본 설계 .....	5
라. 조사표 내용 .....	6
마. 응답자 특성 .....	7
제2장 조사 주요 내용 .....	9
1. 예술활동 내용 및 분야 .....	9
2. 공간 및 교류 .....	11
3. 교육 및 훈련 .....	14
4. 고용 및 근로복지 .....	15
5. 인권 및 권리 .....	20
6. 예술정책 및 사회적 가치 .....	21
7. 코로나19의 영향, 비대면 콘텐츠 인식 .....	23

<b>제3장 시사점 및 정책 제언</b>	<b>24</b>
<b>1. 실태조사 결과를 통한 정책 방향성 제시</b>	<b>24</b>
가. 충청북도 예술인 주요 이슈	24
나. 충청북도 예술인 활동 관련 문제점	33
다. 충청북도 예술사업 및 정책에 대한 의견	35
라. 충청북도 예술사업 및 정책의 방향성	39
<b>2. 충청북도 예술활동의 지속가능성</b>	<b>45</b>
가. 충청북도의 예술인 지원 현황	45
나. 충청북도 예술인 지원정책 방안	47
다.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53

# I. 서론

## 1. 조사 배경 및 목적

- 충청북도 예술인의 활동여건과 활동 실태, 복지수요 등을 파악하여 충청북도 실정에 맞는 문화예술인복지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발전방향 수립의 근거 제공
- 예술인의 권익증진과 세부지역별·장르별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계량적으로 파악하여 예술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및 문화예술정책 수립의 토대 마련
- 지역별 특성에 따른 예술인 현황 및 특징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정보축적 및 관리를 통한 지역문화예술인 실태 변화 분석

## 2. 조사 개요

### 가. 예술인의 의의

- 우리나라 예술인의 사전적 정의는 예술작품을 창작 또는 이를 표현하는 직업인<sup>1)</sup>으로 이는 창작자와 실연자를 의미함
- 그러나 우리 『예술인 복지법』의 예술인 정의는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sup>2)</sup>으로 사전적 정의인 창작자와 실연자에서 확장된 기술지원자를 예술인으로 포함하고 있음
- 기술지원자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예술로 정의하고 있는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 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sup>3)</sup>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작품 기술지원 인력 또는 스태프 등을 의미함<sup>4)</sup>
- 결국, 예술작품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 법적으로 창작자, 실연자, 기술지원자를 모두 예술인으로 정의했다고 평가됨
- 한편 해외에서 예술인을 지칭하는 명칭을 Artist로 정의한다면 시각예술 분야 종사자라는 한정된 개념부터 작가, 음악가 등 전체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로 확장할 수 있음. 또한, 옥스퍼드 영어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에서는 Artist를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과학, 의학, 화학 등의 종사자로 더욱 확장된 개념을 사용<sup>5)</sup>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참조.

2) 예술인 복지법(법률 제18777호, 2022.1.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2.

3)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18769호, 2022.1.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1.

4) 일각에서는 기술지원이라는 기술 인력을 대중 연예 산업 종사자로 한정하는 주장이 있음(이동연, 예술과 노동 사이 : 예술인복지법을 넘어선 예술인 복지, 시민과 세계, 22권 참조). 그러나 문학, 미술(응용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라는 문화예술의 모든 분야는 기술지원에 해당하는 인력이 반드시 종사하고 있으므로 기술지원을 대중 연예 산업 종사자로 한정할 수 없음

- 즉, 예술인은 국가마다 그들의 언어에 맞는 협의의 개념으로 한정할 수도 있고 광의의 개념으로 확장할 수도 있어서 나라마다 예술인의 정의가 다를 수 있음. 그러나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의 기본적인 정의가 예술인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함

## 나. 예술 분야 분류체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분야는 “문학, 사진, 건축, 미술(미술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국악, 무용, 연극, 음악(일반, 대중음악), 영화, 만화, 연예(방송, 공연)”로 예술활동 분야를 구분
- 각 기관에서 조사한 예술인의 예술활동 분야는 최소 11개에서 최대 17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으며, 4차산업 관련 새로운 예술활동 분야를 추가한 사례도 있고 용어가 중복된 사례도 있음

[표 1-1] 타 예술인 실태조사의 예술 분야 분류체계

구분	예술 활동 분야	개수
2018 전국 예술인 실태조사	①문학 ②미술(디자인 포함) ③공예 ④사진 ⑤건축 ⑥음악(양악, 클래식) ⑦국악 ⑧대중음악 ⑨방송연예(대중음악 제외) ⑩무용 ⑪연극(뮤지컬, 오페라 포함) ⑫영화(애니메이션 포함) ⑬만화(웹툰 포함) ⑭기타(다원예술, 생활예술, 예술일반, 문예일반 등)	14개
2019 세종 예술인 실태조사	①문학 ②미술 ③디자인 ④공예 ⑤사진 ⑥건축 ⑦음악(양악, 클래식) ⑧국악 ⑨대중음악 ⑩방송연예(대중음악 제외) ⑪무용 ⑫연극(뮤지컬, 오페라 포함) ⑬영화(애니메이션 포함) ⑭만화(일러스트레이터, 웹툰 포함) ⑮디지털미디어(VR 등 포함) ⑯커뮤니티아트(생활예술 포함) ⑰기타(다원예술, 생활예술, 예술일반, 문예일반 등)	17개
2019 대전 예술인 실태조사	①문학(출판) ②평면(회화) ③공예 ④영상(미술) ⑤서예 ⑥사진 ⑦입체·설치 ⑧음악 ⑨국악 ⑩무용 ⑪연극 ⑫연예(방송, 공연) ⑬대중음악 ⑭영화 ⑮건축 ⑯만화 ⑰디자인	17개
2019년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	①문학 ②미술 ③사진 ④건축 ⑤음악 ⑥국악 ⑦무용 ⑧연극 ⑨영화 ⑩연예 ⑪만화 ⑫다원(복수)	12개
2020년 충청남도 예술인 실태조사	①문학 ②미술(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③사진 ④건축 ⑤무용 ⑥음악(일반, 대중음악) ⑦국악 ⑧연극 ⑨영화 ⑩연예(방송, 공연) ⑪만화(웹툰 포함)	11개

- 본 ‘2021년 충청북도 예술인 실태조사’에서는 예술/예술인 관련 전문가 초빙 후 진행된 자문 회의를 통해 전국, 타 지역의 예술분야 분류체계를 비교하여, 충청북도 지역 특성에 맞는 예술분야로 분류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5) <https://en.wikipedia.org/wiki/Artist> 참조.



[표 1-2] 2021년 충청북도 예술인 실태조사 예술 분야 분류체계

구분	예술 활동 분야	개수
2021년 충청북도 예술인 실태조사	①문학 ②미술(디자인 포함), ③공예 ④사진 ⑤건축 ⑥음악(대중음악, 국악 등을 제외한 클래식) ⑦대중음악 ⑧국악(전통계속, 농악 포함) ⑨무용 ⑩연극(뮤지컬, 오페라 포함) ⑪영화(애니메이션 포함) ⑫연예, ⑬만화/웹툰 ⑭기타	14개

## 다. 조사 범위

- 본 조사의 범위는 충북 예술인 모집단 DB 구축, 실태조사, 정책 및 시사점 도출임

[표 1-3] 조사 범위

구분	충북 예술인 모집단 DB 구축	충북 예술인 실태조사	정책 및 시사점 도출
조사 모집단	충북에 거주 또는 3년 이상 예술인으로 활동한 만 19세 이상 예술인	충북에 거주 또는 3년 이상 예술인으로 활동한 만 19세 이상 예술인	충북지역 문화예술 전문가 문화예술 및 콘텐츠 분야 교수/박사
표본규모	전수조사 (약 5,309명)	2,000명 목표 (실제 1,936명 응답)	자문위원단 구성
표본배분	전수조사	예술 분야 및 지역을 고려한 제공근 비례할당	-
조사방법	방문면접조사를 기본으로 전화, 온라인, e-mail, fax 조사 병행	방문면접조사를 기본으로 전화, 온라인, e-mail, fax 조사 병행	자문회의, 간담회 등
조사내용	응답자 일반 정보, 활동분야, 소속 예술단체 및 협회, 재원조달 형태 및 지난 3년간 보조금 사업 신청 및 지원 여부, 창작공간 보유여부 등 예술활동증명 미등록 현황 자료 확보	예술활동 내용 및 분야, 공간 및 교류, 교육 및 훈련, 고용 및 근로복지, 인권 및 권리, 예술정책 및 사회적 가치 등	충북 문화예술을 대표할 수 있는 구체적 지표 발굴, 충청북도 지역 예술인 복지 및 인권

## 라. 조사 기간

- 개인정보활용동의 조사(모집단 DB 구축) : 2021년 9월 13일 ~ 11월 5일
- 충북 예술인 실태조사(본 조사) : 2021년 12월 9일 ~ 2022년 2월 11일

### 3. 조사 설계

#### 가. 목표 모집단

- 예총/민예총소속 예술인 DB, 충북문화재단 보유 예술인 DB을 기본으로 충북 예술단체/협회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지 않은 예술인들을 DB를 통해 총 5,309명 수집

[표 1-4] 목표 모집단

(단위 : 명)

주 예술 분야	예술활동 지역											합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진천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단양군	
문학	223	84	52	56	52	63	47	41	30	36	27	711
미술	563	92	105	51	54	33	60	9	4	24	40	1,035
공예	27	4	1	132	15	4	1	1	35	2	4	226
사진	162	55	51	19	24	29	0	24	25	0	11	400
건축	114	1	0	3	0	0	0	0	1	4	0	123
음악	297	88	35	59	23	45	30	87	28	33	80	805
국악	236	67	53	22	76	137	61	59	46	40	76	873
무용	80	57	1	1	3	8	2	3	2	0	0	157
연극	180	33	23	8	3	1	4	2	6	1	21	282
영화	43	25	0	0	0	0	0	12	0	1	0	81
연예	156	50	73	0	50	43	0	70	3	1	0	446
만화/웹툰	2	0	0	2	0	0	0	0	0	0	0	4
기타	93	10	6	6	4	5	4	18	3	16	1	166
합계	2,176	566	400	359	304	368	209	326	183	158	260	5,309

## 나. 조사 모집단

- 충북 예총/민예총소속 예술인 리스트로 수집된 DB의 개인정보(연락처 등)는 조사를 위해 활용할 수 없어, 온라인 개인정보동의조사를 통해 목표 모집단 5,309명 중 3,461명의 예술인 개인정보를 별도로 수집 완료

[표 1-5] 조사 모집단

(단위 : 명)

주 예술 분야	예술활동 지역											합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진천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단양군	
문학	223	37	23	11	14	9	10	32	24	8	9	400
미술	442	92	50	51	40	25	41	9	4	7	23	784
공예	27	4	1	3	8	4	1	1	0	0	4	53
사진	90	53	23	9	17	21	0	21	23	0	8	265
건축	37	1	0	3	0	0	0	0	1	4	0	46
음악	297	50	34	13	23	38	9	45	13	14	2	538
국악	200	63	52	16	76	79	41	23	1	31	60	642
무용	60	16	1	1	3	8	2	3	2	0	0	96
연극	149	16	9	8	3	1	4	2	6	1	3	202
영화	20	2	0	0	0	0	0	12	0	1	0	35
연예	45	50	0	0	50	43	0	52	3	1	0	244
만화/웹툰	2	0	0	2	0	0	0	0	0	0	0	4
기타	93	10	6	6	4	5	4	18	3	2	1	152
합계	1,685	394	199	123	238	233	112	218	80	69	110	3,461

## 다. 목표 표본 설계

- 조사 모집단에서 주 예술분야 \* 예술활동 지역별로 20개 이하의 셀은 전수조사, 나머지 셀에 대해서 제공근 비례배분을 하여 최종 표본 설계를 확정

[표 1-6] 목표 표본 설계

(단위 : 명)

주 예술 분야	예술활동 지역											합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진천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단양군	
문학	71	29	23	11	14	9	10	27	23	8	9	234
미술	100	46	34	34	30	24	30	9	4	7	23	341
공예	25	4	1	3	8	4	1	1	0	0	4	51
사진	45	35	23	9	17	22	0	22	23	0	8	204
건축	29	1	0	3	0	0	0	0	1	4	0	38
음악	82	34	28	13	23	29	9	32	13	14	2	279
국악	67	38	34	16	41	42	30	23	1	27	37	356
무용	37	16	1	1	3	8	2	3	2	0	0	73
연극	58	16	9	8	3	1	4	2	6	1	3	111
영화	20	2	0	0	0	0	0	12	0	1	0	35
연예	32	34	0	0	34	31	0	34	3	1	0	169
만화/웹툰	2	0	0	2	0	0	0	0	0	0	0	4
기타	46	10	6	6	4	5	4	18	3	2	1	105
합계	614	265	159	106	177	175	90	183	79	65	87	2,000

## 라. 조사표 내용

- 조사 내용은 예술활동 내용 및 분야, 공간 및 교류, 교육 및 훈련, 고용 및 근로복지, 인권 및 권리 예술정책 및 사회적 가치, 코로나19의 영향, 비대면 콘텐츠 관련 인식을 포함한 7개 분야이며, 세부 조사항목은 42개로 구성됨

[표 1-7] 조사 세부 내용

구분	세부내용	
A. 예술활동 내용 및 분야 (4개 문항)	A1. 현재 활동 중인 예술 분야 A3. '예술활동증명' 보유 여부	A2. 예술활동 관련 문항 A4.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 여부
B. 공간 및 교류 (9개 문항)	B1. 창작 공간 보유(자가 또는 임대) B3. 예술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공간 B5. 예술활동 관련 공간 이용 시 애로사항 B7. 예술인 단체나 협회에 활동 및 지원 B9. 충북지역에서의 예술활동 시 가장 어려운 점	B2. 창작 공간의 크기 및 소유 형태 B4. 예술활동 관련 공간 B6. 예술인 단체나 협회에 가입 여부 B8. 예술활동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C. 교육 및 훈련 (5개 문항)	C1. 최종 학력 C3. 정규교육 외 예술 관련 교육 여부 C5.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재교육	C2. 전공 예술 분야 C4. 전문적인 예술교육 필요도
D. 고용 및 근로복지 (10개 문항)	D1. 지난 3년간 예술활동 전업 여부 D3. 1주일 평균 할애 시간 D5. 총 개인소득/예술활동 소득 D7. 4대 보험 가입 형태 D9. 지난 3년간 계약 체결 경험 여부	D2. 예술교육 관련 직업 종사 여부 D4. 지난 3년간 고용형태 D6. '예술활동 소득'의 주된 소득원 D8.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여부 D10. 계약 관련 사항
E. 인권 및 권리 (5개 문항)	E1. 충청북도 예술활동에 대한 의견 E3. 성희롱/성폭행/성추행 등의 심각도 E5. 성폭력 예방 교육 여부	E2. 성희롱/성폭행/성추행 등 직/간접 경험 E4. 성희롱/성폭행/성추행 발생 이유
F. 예술정책 및 사회적 가치 (6개 문항)	F1. 충북문화재단 예술인 지원사업 인지 여부 및 필요성 F3. 충청북도 예술정책 불만족 이유 F5. 충북문화재단의 예술인 지원 방향	F2. 충청북도 예술정책 만족도 F4. 예술활동 관련 보조금 신청/지원 여부 F6. 충북 문화예술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안
G. 코로나19의 영향, 비대면 콘텐츠 관련 인식 (3개 문항)	G1. 예술 프로젝트 중단/취소/연기 경험 G3. 예술작품의 온라인 제작·중계·송출·유통 경험	G2. 코로나19가 예술활동에 미친 영향

- 조사 기준 시점 : 지난 3년간의 예술활동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세부 조사 내용에 따라 조사 기준 시점이 다를 수 있음

## 마. 응답자 특성

- 응답 데이터를 실제 목표 모집단의 분포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 진행

[표 1-8] 응답자 특성(미가중)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 체		(1,936)	100.0
주 예술활동 수행 지역 (시군단위별)	청주시	(1,045)	54.0
	제천/충주시	(336)	17.4
	그 외 지역(군)	(555)	28.7
예술분야 대분류	문학 예술	(252)	13.0
	시각 예술	(801)	41.4
	공연 예술	(832)	43.0
	기타	(51)	2.6
성별	남자	(821)	42.4
	여자	(1,115)	57.6
연령	30대 이하	(306)	15.8
	40대	(270)	13.9
	50대	(562)	29.0
	60대 이상	(798)	41.2
장애 여부	비장애 예술인	(1,881)	97.2
	장애 예술인	(55)	2.8
주 예술활동 수행 지역	청주시	(1,045)	54.0
	충주시	(213)	11.0
	제천시	(123)	6.4
	음성군	(104)	5.4
	진천군	(110)	5.7
	옥천군	(86)	4.4
	영동군	(55)	2.8
	괴산군	(90)	4.6
	증평군	(42)	2.2
	보은군	(21)	1.1
	단양군	(47)	2.4
주 활동 예술분야	문학	(252)	13.0
	미술	(553)	28.6
	공예	(91)	4.7
	사진	(129)	6.7
	건축	(25)	1.3
	음악	(233)	12.0
	대중음악	(53)	2.7
	국악	(186)	9.6
	무용	(60)	3.1
	연극	(156)	8.1
	영화	(12)	0.6
	연예	(132)	6.8
	만화/웹툰	(3)	0.2
	기타	(51)	2.6

[표 1-9] 응답자 특성(가중 적용)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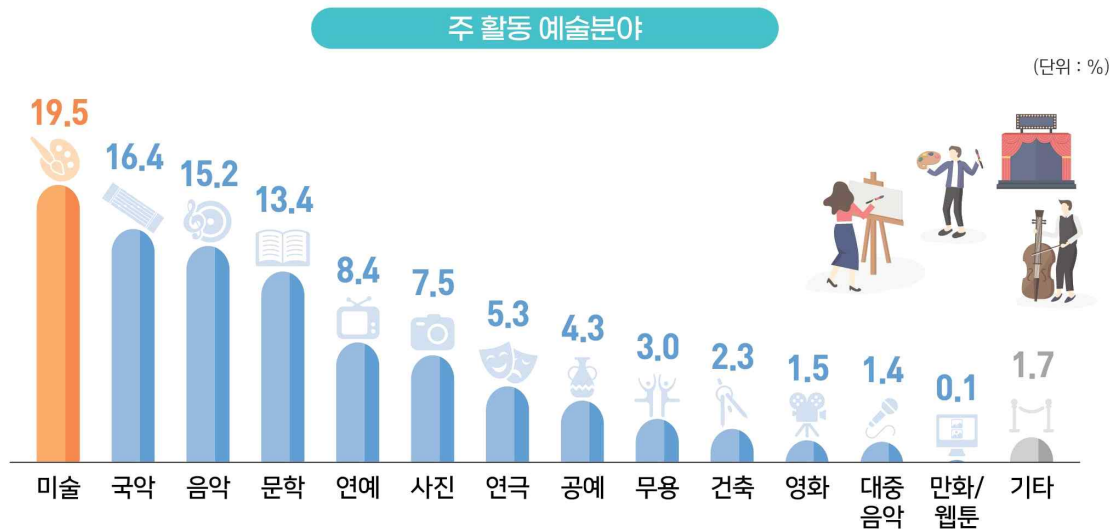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비율
전 체		(5,309)	100.0
주 예술활동 수행 지역 (시군단위별)	청주시	(2,176)	41.0
	제천/충주시	(966)	18.2
	그 외 지역(군)	(2,167)	40.8
예술분야 대분류	문학 예술	(711)	13.4
	시각 예술	(1,788)	33.7
	공연 예술	(2,718)	51.2
	기타	(92)	1.7
성별	남자	(2,210)	41.6
	여자	(3,099)	58.4
연령	30대 이하	(798)	15.0
	40대	(633)	11.9
	50대	(1,694)	31.9
	60대 이상	(2,184)	41.1
장애 여부	비장애 예술인	(5,092)	95.9
	장애 예술인	(217)	4.1
주 예술활동 수행 지역	청주시	(2,176)	41.0
	충주시	(566)	10.7
	제천시	(400)	7.5
	음성군	(359)	6.8
	진천군	(304)	5.7
	옥천군	(368)	6.9
	영동군	(209)	3.9
	괴산군	(326)	6.1
	증평군	(183)	3.4
	보은군	(158)	3.0
주 활동 예술분야	단양군	(260)	4.9
	문학	(711)	13.4
	미술	(1,035)	19.5
	공예	(226)	4.3
	사진	(400)	7.5
	건축	(123)	2.3
	음악	(805)	15.2
	대중음악	(74)	1.4
	국악	(873)	16.4
	무용	(157)	3.0
	연극	(282)	5.3
	영화	(81)	1.5
	연예	(446)	8.4
	만화/웹툰	(4)	0.1
	기타	(92)	1.7

## II. 조사 주요 내용

### 1. 예술활동 내용 및 분야

- 충청북도 예술인의 주 예술 분야는 미술(19.5%), 국악(16.4%), 음악(15.2%), 문학(13.4%)의 비율이 비교적 높음
  - 청주시(25.9%), 제천/충주시(20.4%)는 미술 예술인의 비율이 높은 편임
  - 청주/제천/충주 외 지역은 국악 예술인(23.9%)의 비율이 가장 높음
  - 단체활동(41.1%)을 통해 입문한 비율이 가장 높음

[그림 2-1] 주 활동 예술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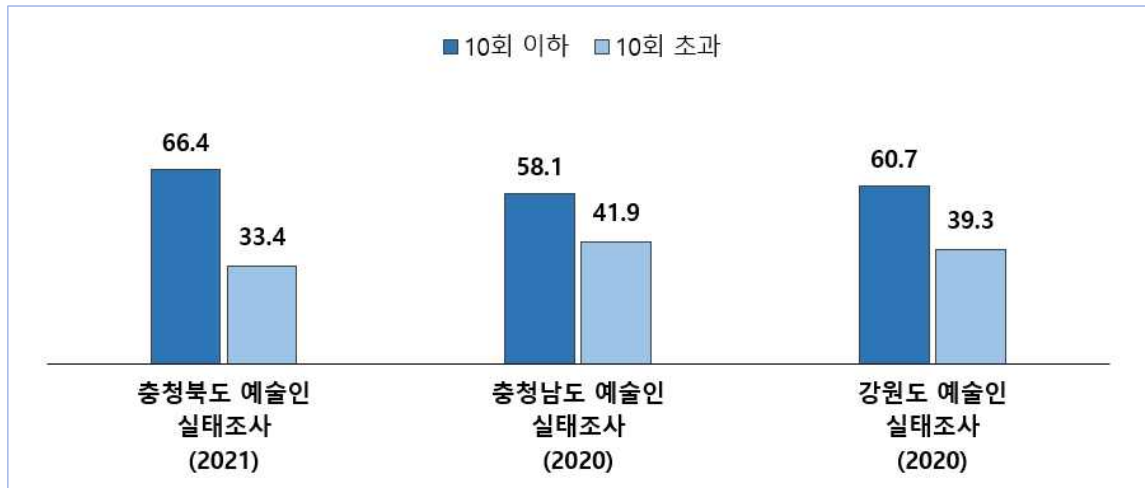


- 충청북도 예술인 중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37.3%이며, 충북 인근 지역인 충남, 대전, 강원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임
  -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하지 않은 예술인은 그 이유를 ‘예술활동증명’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이 3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추후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받을 의향은 77.1%로 조사됨
  - 특히 청주 외 지역과 장애 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 보유율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고, ‘예술활동증명’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도 높아 예술인 특성을 고려한 ‘예술활동증명’ 홍보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충청북도 예술인의 지난 3년간 주 활동 예술 분야 작품 발표/참여 횟수는 평균 17.0회, 총 활동 기간은 평균 15.2년이며, 인접 지역, 전국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발표/참여 횟수, 총 활동 기간이 적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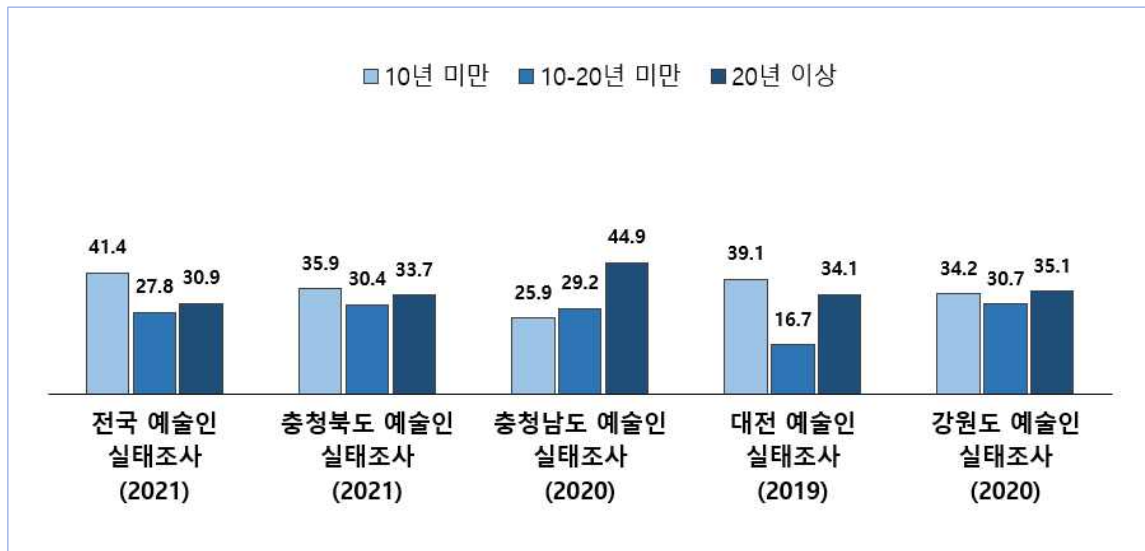
[그림 2-2] 3년간 예술작품 발표/참여 횟수 - 타 지역 조사 비교

(단위 : %)



[그림 2-3] 총 활동 기간 - 타 지역 조사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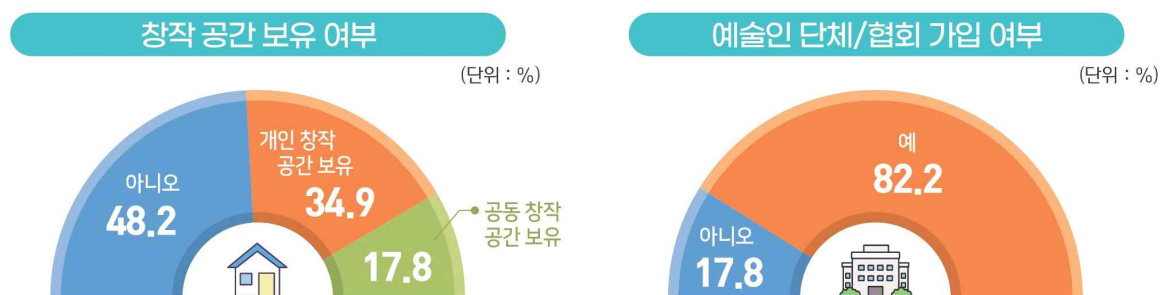




## 2. 공간 및 교류

- 충청북도 예술인의 34.9%가 개인 창작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17.8%가 공동 창작 공간을 보유하고 있음
  - 충청북도의 개인 창작 공간의 크기는 평균 25.3평, 소유 형태는 자가(54.9%)가 많음
  - 공동 창작 공간의 크기는 평균 30.5평, 소유 형태는 임대-월세(53.4%)가 많음
- 충청북도 예술인 중 예술인 단체/협회에 가입한 비율은 82.2%로 10명 중 8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예술 단체/협회에 가입한 예술인은 평균 2.6개의 단체/협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실제 활동 수는 2.3개로 조사됨
  - 가입한 예술인 단체/협회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 기준 60.5점 수준(만족 비율 42.0%)임
  - 예술인 단체/협회에서 예술활동 지원을 실제로 하는 비율은 48.3%, 지원 만족도는 100점 만점 기준 56.3점 수준(만족 비율 32.5%)임

[그림 2-4] 창작 공간 보유 여부, 예술인 단체/협회 가입 여부



- 충청북도 예술인은 예술활동을 위해 창작 공간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28.0%)을 보임
  - 예술분야가 문학/시각 예술인은 창작 공간, 공연 예술인은 연습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음
  - 특히 예술활동 지역이 청주 외 지역인 예술인과 장애 예술인은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충청북도 장애인 예술인과 심층인터뷰 결과, 충청북도 예술 관련 지원사업, 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예술 활동 관련하여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보임

[표 2-1] 예술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공간

(단위 : %)

구분	사례수	창작 공간 (창작/제작, 연구, 개인 공간 등)	연습 공간 (창작/제작을 위한 연습 공간 등)	발표 공간 (공연장, 전시장, 발표장, 교육장 등)	자료 공간 (오프라인 공간/온라인 문화예술 아카이브 등)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친목, 교류 목적의 공간 등)
전 체	(5,309)	28.0	26.8	25.1	4.6	15.5
주 예술활동 수행 지역 (시군단위별)	청주시 (2,176)	31.3	26.8	27.2	3.8	10.9
	제천/충주시 (966)	30.8	24.5	21.3	5.4	18.0
	그 외 지역(군) (2,167)	23.4	27.8	24.7	5.1	19.0
예술분야 대분류	문학 예술 (711)	49.5	3.7	13.2	6.1	27.6
	시각 예술 (1,788)	44.4	7.7	26.0	5.7	16.2
	공연 예술 (2,718)	11.1	45.8	27.5	3.6	12.1
	기타 (92)	42.6	14.7	27.4	4.7	10.5
장애 여부	비장애 예술인 (5,092)	28.3	26.8	25.3	4.8	14.8
	장애 예술인 (217)	19.4	26.3	21.4	0.0	32.9

- 충청북도 예술활동 관련 공간은 창작/연습/발표/자료/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모두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특히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이 가장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임

[표 2-2] 예술활동 관련 공간별 충분 정도

(단위 : %, 점)

구분	사례수	세부평가					종합평가			평균
		매우 부족	다소 부족	보통	충분	매우 충분	부족	보통	충분	
창작 공간	(5,309)	25.1	36.4	32.6	4.8	1.0	61.5	32.6	5.9	30.1
연습 공간	(5,309)	23.5	37.5	33.1	5.0	0.8	61.1	33.1	5.8	30.5
발표 공간	(5,309)	21.9	35.7	36.8	5.0	0.6	57.7	36.8	5.6	31.7
자료 공간	(5,309)	20.6	38.9	36.6	3.2	0.6	59.6	36.6	3.8	31.0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5,309)	23.9	40.8	31.9	2.9	0.6	64.6	31.9	3.5	28.9

- 충청북도 예술활동 관련 공간에 대해 애로사항은 대체로 예술활동 공간의 부족, 시설의 불편함, 공간 대여 절차의 어려움 등이 있었음

- 전시공간은 어느 정도 많지만 공연장이 대체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

- 같은 직종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

- 공간의 대관 규정/절차가 까다롭고, 공간을 장기로 예약한 경우가 많아 신규 신청이 어렵다는 의견

- 도심지역에만 공간이 몰려있고 그 외 지역에 공간이 부족하고 노후화 되어있다는 의견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위치에 예술활동 공간이 있다는 의견

- 공간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일원화된 플랫폼이 없다는 의견 등이 있음

- 충북지역에서 예술활동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향/거주지역이 충북이라서라는 의견이 7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충북 기관/단체의 예술인 지원이 좋아서, 예술 행사/사업이 많아서라는 의견은 각각 3.5%, 2.6%에 그침
- 또한 충청북도에서 예술활동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충북 기관/단체의 예술인 지원 부족(33.9%), 예술 행사/사업의 부족(26.6%)이 가장 많은 의견을 보임
  - 비장애 예술인은 충북 기관/단체의 예술인 지원 부족(34.2%)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응답한 반면, 장애 예술인은 예술 행사/사업의 부족(37.5%)이라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보임

[표 2-3] 충북지역에서 예술활동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단위 : %)

구분	사례수	고향/ 거주 지역이 충북 지역이 라서	알고 있는 예술인이 많아서	충북 기관 /단체의 예술인 지원이 좋아서	예술 행사 /사업이 많아서	직장이 충북 이라서	예술활동 으로 인한 소득이 다른 지역보다 괜찮아서	기타	없음
전 체	(5,309)	76.2	10.1	3.5	2.6	1.0	0.8	5.2	0.7

[표 2-4] 충북지역에서 예술활동 시 가장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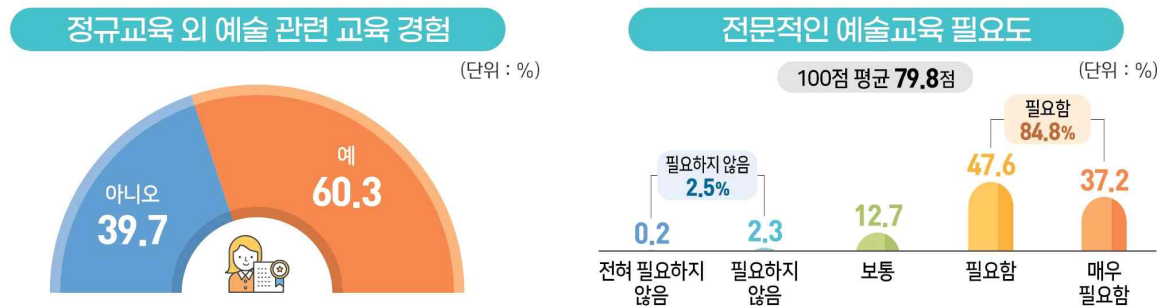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충북 기관 /단체의 예술인 지원 부족	예술 행사 /사업의 부족	예술활동 으로 인한 소득이 다른 지역 보다 적음	도민의 예술 관련 관심도가 낮음	알고 있는 예술인이 적음	기타	없음
전 체	(5,309)	33.9	26.6	13.6	13.2	7.4	1.9	3.3

### 3. 교육 및 훈련

- 정규교육 외 예술 관련 교육에 대해 경험률은 60.3%이며, 전문적인 예술교육의 필요도는 100점 만점 기준 79.8점 수준(필요함 84.8%)임

[그림 2-5] 정규교육 외 예술 관련 교육 경험, 전문적인 예술교육 필요도



- 충청북도 예술인의 최종 학력은 대졸이 3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석사졸(22.1%), 고졸(21.5%), 초대졸(10.3%) 등의 순임
-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재교육(예술 관련 외 교육)은 온라인 미디어 활용법이 2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특히 연령이 높거나, 장애 예술인은 온라인 미디어 활용법에 대해 상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장애 예술인 심층인터뷰 결과, 예술 활동할 기회가 적어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기관/단체에서 지원해주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표 2-5]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재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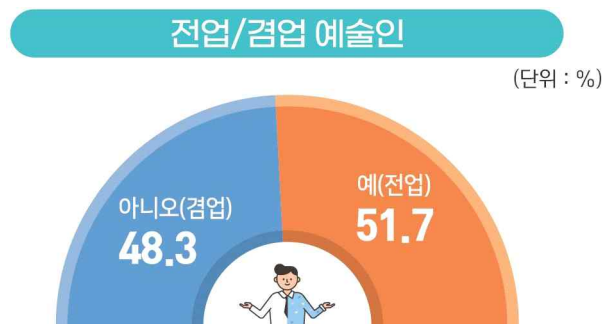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온라인 미디어 활용법	홍보방법 (매체 등)	예산운용 법(집행 정산 등)	기업으로 부터 후원 받는 방법	단체 설립 및 운영	기타	없음
전 체	(5,309)	27.6	22.0	18.6	15.4	11.2	3.2	1.9
연령	30대 이하 (798)	19.0	17.8	21.5	23.8	9.4	7.5	0.8
	40대 (633)	22.3	29.9	20.1	15.1	8.1	3.4	1.1
	50대 (1,694)	29.7	23.0	17.9	12.2	13.3	2.2	1.8
	60대 이상 (2,184)	30.5	20.6	17.7	14.9	11.2	2.4	2.7
장애 여부	비장애 예술인 (5,092)	27.1	22.0	18.8	15.7	11.3	3.3	1.9
	장애 예술인 (217)	38.8	23.9	15.3	8.6	8.5	1.8	3.2

#### 4. 고용 및 근로복지

- 지난 3년간 전업으로 예술활동을 한 전업 예술인은 51.7%, 겸업 예술인은 48.3%로 조사됨
  - 특히 여성, 연령이 높거나 청주/제천/충주시 외 군지역, 문학 예술인은 예술활동을 겸업으로 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겸업 예술인은 다른 일자리를 갖게 된 주된 이유가 낮은 소득, 불규칙한 소득 때문이라는 의견이 각각 39.8%, 2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그림 2-6] 전업/겸업 예술인 여부



- 전업 예술인은 1주일에 평균 18.7시간을 예술활동에 할애하고 있으며, 겸업 예술인은 평균 8.1시간을 할애하고 있음
  - 겸업 예술인의 예술활동 외 직업 할애 시간은 1주일에 평균 23.1시간임

[표 2-6] 직업별 1주일 평균 할애 시간

(단위 : %, 시간)

구분	사례수	5시간 미만	5~10시간 미만	10~20시간 미만	20~30시간 미만	30시간 이상	평균
전업 예술인	(2,745)	21.5	11.5	21.6	19.0	26.5	18.7
겸업 예술인 - 예술활동 직업	(2,564)	50.0	18.0	17.9	8.7	5.4	8.1
겸업 예술인 - 예술활동 외 직업	(2,564)	10.6	18.5	15.8	11.4	43.7	23.1

- 지난 3년간 충청북도 예술인의 예술활동 직업 고용형태는 프리랜서가 7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겸업 예술인의 예술활동 외 직업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이 27.4%로 가장 높음
  -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거나 청주/제천/충주 외 군지역, 문학 예술인은 프리랜서 비율이 높음

[표 2-기] 3년간 고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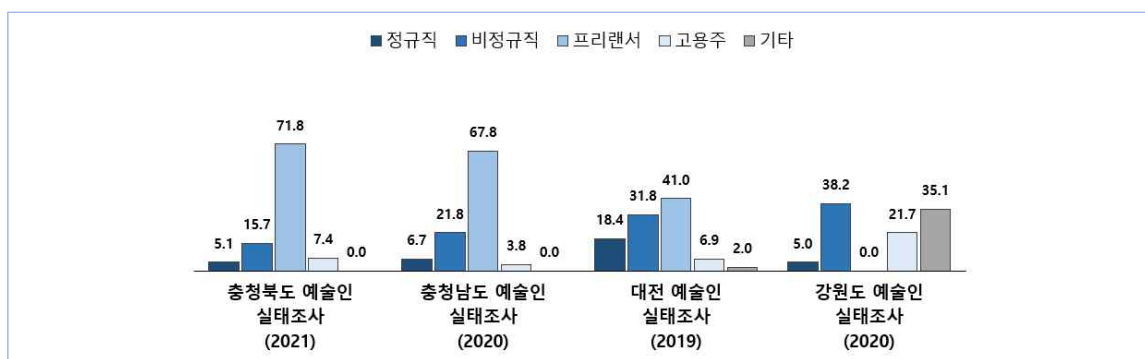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주 (자영업자)	프리랜서	
예술활동 직업	전 체	(5,309)	5.1	15.7	7.4	71.8	
	주 예술활동 수행 지역 (시군단위별)	청주시	(2,176)	7.7	16.6	6.3	69.3
		제천/충주시	(966)	4.1	23.4	8.0	64.4
	예술분야 대분류	그 외 지역(군)	(2,167)	2.8	11.4	8.2	77.6
		문학 예술	(711)	1.9	7.1	1.9	89.1
		시각 예술	(1,788)	4.2	10.3	10.6	74.9
		공연 예술	(2,718)	6.5	21.9	6.5	65.2
	기타	(92)	5.6	7.7	14.4	72.3	
	연령	30대 이하	(798)	8.5	28.4	5.7	57.4
		40대	(633)	8.1	30.4	11.9	49.7
		50대	(1,694)	6.0	11.4	5.3	77.3
60대 이상		(2,184)	2.2	10.3	8.3	79.2	
예술활동 외 직업	전 체	(2,564)	25.0	27.4	20.7	27.0	
	주 예술활동 수행 지역 (시군단위별)	청주시	(903)	24.2	32.8	21.9	21.1
		제천/충주시	(439)	33.4	21.7	16.9	28.0
	예술분야 대분류	그 외 지역(군)	(1,223)	22.5	25.4	21.1	30.9
		문학 예술	(388)	21.5	19.5	21.1	37.9
		시각 예술	(870)	25.9	20.6	26.0	27.5
		공연 예술	(1,261)	25.2	34.8	16.8	23.2
	기타	(45)	31.3	17.5	23.8	27.3	
	연령	30대 이하	(268)	29.2	41.1	7.2	22.6
		40대	(279)	16.8	39.7	21.3	22.1
		50대	(943)	36.4	26.4	15.2	22.1
60대 이상		(1,074)	16.0	21.6	28.8	33.6	

- 충청북도 인접 지역인 대전/충남/강원에 비해 프리랜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2-기] 3년간 고용형태(예술활동 직업) - 타 지역 비교

(단위 : %)



- 충청북도 예술인의 1년간 총 소득은 코로나19 이전에는 평균 1,768만원, 코로나19 이후에는 평균 1,437만원으로 조사됨
- 1년간 예술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코로나19 이전에는 평균 897만원, 코로나19 이후에는 평균 698만원으로 조사됨
  - 청주시와 청주시 외 지역과의 총 소득, 예술활동 소득 격차가 매우 크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군지역의 예술활동 소득은 청주시의 42.8% 수준밖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예술분야는 시각 예술인의 소득이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예술활동 직업을 통한 소득은 수업료, 강사비가 2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출연료(14.6%), 작품판매료(9.0%), 급여(6.6%) 등의 순임

[표 2-8] 연평균 소득 현황

(단위 : %, 만원)

구분			사례수	없음	500 만원 미만	500~ 1,000 만원 미만	1,000~ 2,000 만원 미만	2,000~ 3,000 만원 미만	3,000 만원 이상	평균
총 소득 (코로나19 이전)	전 체		(5,309)	17.8	23.9	6.7	15.9	11.4	24.3	1,768
	주 예술활동 수행 지역 (시군단위별)	청주시	(2,176)	14.2	20.7	4.9	16.2	12.3	31.7	2,255
		제천/충주시	(966)	17.8	28.2	5.8	15.0	13.1	20.1	1,487
		그 외 지역(군)	(2,167)	21.5	25.2	8.9	16.0	9.7	18.7	1,405
	예술분야 대분류	문학 예술	(711)	18.8	28.0	8.5	13.2	9.0	22.6	1,586
		시각 예술	(1,788)	20.3	16.4	7.5	15.9	10.2	29.7	2,137
		공연 예술	(2,718)	16.0	28.0	5.5	16.7	12.7	21.0	1,565
		기타	(92)	15.6	16.3	12.9	12.4	13.1	29.7	2,030
총 소득 (코로나19 이후)	전 체		(5,309)	20.9	25.4	7.3	18.3	10.7	17.3	1,437
	주 예술활동 수행 지역 (시군단위별)	청주시	(2,176)	17.2	21.1	6.3	18.8	11.6	24.9	1,906
		제천/충주시	(966)	20.8	26.9	8.0	19.0	7.9	17.4	1,289
		그 외 지역(군)	(2,167)	24.6	29.2	8.1	17.5	11.0	9.6	1,033
	예술분야 대분류	문학 예술	(711)	21.6	27.4	9.1	12.9	10.0	18.9	1,373
		시각 예술	(1,788)	23.7	18.4	9.5	16.8	9.4	22.3	1,784
		공연 예술	(2,718)	18.9	29.7	5.5	20.8	11.8	13.3	1,215
		기타	(92)	19.3	21.8	6.6	18.6	8.6	25.1	1,777
예술활동 소득 (코로나19 이전)	전 체		(5,309)	33.2	31.2	7.8	11.2	5.5	11.1	897
	주 예술활동 수행 지역 (시군단위별)	청주시	(2,176)	29.6	29.1	6.7	12.6	6.6	15.5	1,192
		제천/충주시	(966)	30.1	34.4	7.1	8.8	8.7	10.9	832
		그 외 지역(군)	(2,167)	38.2	31.9	9.3	10.8	2.9	6.9	630
	예술분야 대분류	문학 예술	(711)	40.9	38.4	6.6	3.1	2.3	8.8	554
		시각 예술	(1,788)	38.6	23.4	9.6	11.0	4.6	12.7	999
		공연 예술	(2,718)	27.7	34.6	6.7	13.5	6.7	10.8	918
		기타	(92)	30.2	26.5	16.9	7.4	9.9	8.9	946

예술활동 소득 (코로나19 이후)	전 체		(5,309)	38.1	32.5	5.4	11.6	4.6	7.8	698
	주 예술활동 수행 지역 (시군단위별)	청주시	(2,176)	34.0	30.8	6.1	12.4	5.2	11.5	959
		제천/충주시	(966)	40.7	28.0	4.2	12.1	4.8	10.2	750
		그 외 지역(군)	(2,167)	41.0	36.3	5.1	10.7	3.9	3.0	411
	예술분야 대분류	문학 예술	(711)	46.0	35.1	6.6	1.8	3.3	7.3	431
		시각 예술	(1,788)	43.5	26.8	5.9	11.0	4.2	8.5	791
		공연 예술	(2,718)	32.5	35.6	4.7	14.6	5.2	7.4	703
		기타	(92)	35.5	35.6	4.1	11.2	6.3	7.3	781

- 충청북도 예술인의 4대 보험 및 연금 수급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공적연금은 지역 국민연금으로 가입한 경우가 26.8%, 직장 국민연금 26.5%임
  - 건강보험은 지역 가입자로 가입한 경우가 36.0%, 직장 가입자 32.0%임
  - 산재보험은 가입 비율은 32.4%,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36.1%임
  - 만 65세 이상 예술인은 기초연금이 27.8%, 노령연금이 33.4% 해당

[표 2-9] 4대 보험 및 연금 가입 형태

(단위 : %)

공적 연금	사례수	국민연금 (직장)	국민연금 (지역)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해당 없음 (미가입자, 납부예외자 등)	
전 체	(5,309)	26.5	26.8	9.5	0.2	3.6	33.5	

건강 보험	사례수	직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지역 가입자의 세대원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미가입자
전 체	(5,309)	32.0	13.8	36.0	9.0	0.6	0.2	8.3

산재 보험	사례수	직장에서 가입	본인이 가입 (중소기업사업주)		가입하지 않음	
전 체	(5,309)	28.9	3.5		67.6	

고용 보험	사례수	가입함			가입하지 않음	
전 체	(5,309)	36.1			63.9	

기초 연금	사례수	해당함			해당 없음	
전 체	(1,160)	27.8			72.2	

노령 연금	사례수	해당함			해당 없음	
전 체	(1,160)	33.4			66.6	



- 프리랜서 예술인이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은 7.3%의 예술인이 가입되어 있음
  - 연령이 낮고, 예술분야가 공연 예술인(12.2%)이 고용보험 가입률이 높음

[표 2-10]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여부

(단위 : %)

구분		사례수	현재 가입되어 있음	가입한 적 있으나 현재는 가입되어 있지 않음	가입하지 않음
전 체		(5,309)	7.3	5.3	87.4
예술분야 대분류	문학 예술	(711)	2.0	1.0	97.0
	시각 예술	(1,788)	2.2	4.1	93.6
	공연 예술	(2,718)	12.2	7.1	80.7
	기타	(92)	3.5	6.0	90.5
연령	30대 이하	(798)	16.7	11.4	71.9
	40대	(633)	9.8	10.2	80.0
	50대	(1,694)	6.7	4.3	89.1
	60대 이상	(2,184)	3.7	2.3	93.9

- 지난 3년간 충청북도 예술인 예술활동의 ‘활동 기간’, ‘보수’ 등과 관련된 계약 체결률은 28.6%임
  - 주 예술활동 수행 지역이 청주시, 연령이 낮고, 예술분야가 공연 예술인이 상대적으로 계약 체결 경험률이 높음
  - 계약 체결을 경험한 예술인은 평균 7.3건을 계약 체결함
  - 체결한 계약 중 서면계약 건수가 평균 6.4건, 그 중 표준계약서는 평균 5.3건으로 조사됨

[표 2-11] 3년간 활동 기간/보수 관련 계약 체결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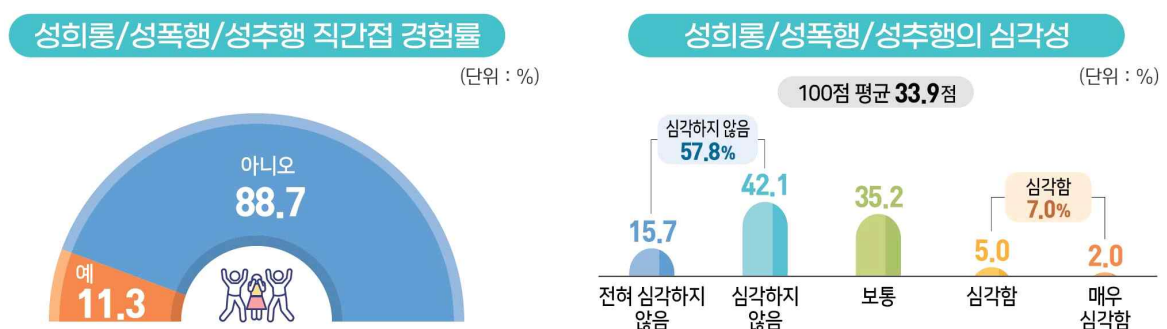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5,309)	28.6	71.4
주 예술활동 수행 지역 (시군단위별)	청주시	(2,176)	33.9	66.1
	제천/충주시	(966)	27.9	72.1
	그 외 지역(군)	(2,167)	23.5	76.5
예술분야 대분류	문학 예술	(711)	16.6	83.4
	시각 예술	(1,788)	17.7	82.3
	공연 예술	(2,718)	38.6	61.4
	기타	(92)	35.1	64.9
연령	30대 이하	(798)	53.8	46.2
	40대	(633)	47.9	52.1
	50대	(1,694)	29.5	70.5
	60대 이상	(2,184)	13.1	86.9

## 5. 인권 및 권리

- 예술활동 시 성희롱/성폭행/성추행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비율은 11.3%임
  - 연령이 낮고, 주 예술활동 수행 지역이 청주시, 공연 예술인이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예술활동 시 성희롱/성폭행/성추행의 심각 정도는 100점 만점 기준 33.9점(심각함 7.0%) 수준
  - 성희롱/성폭행/성추행이 발생하는 이유는 성희롱/성폭력/성추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라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율(43.7%)을 보임

[그림 2-8] 성희롱/성폭행/성추행 직간접 경험



- 충청북도 예술인의 예술활동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예술가 관리/발굴 프로그램 마련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100점 만점 기준 37.8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동등히 일할 기회 제공(38.0점), 다양한 진로 제시(39.7점) 순임

[표 2-12] 예술활동 관련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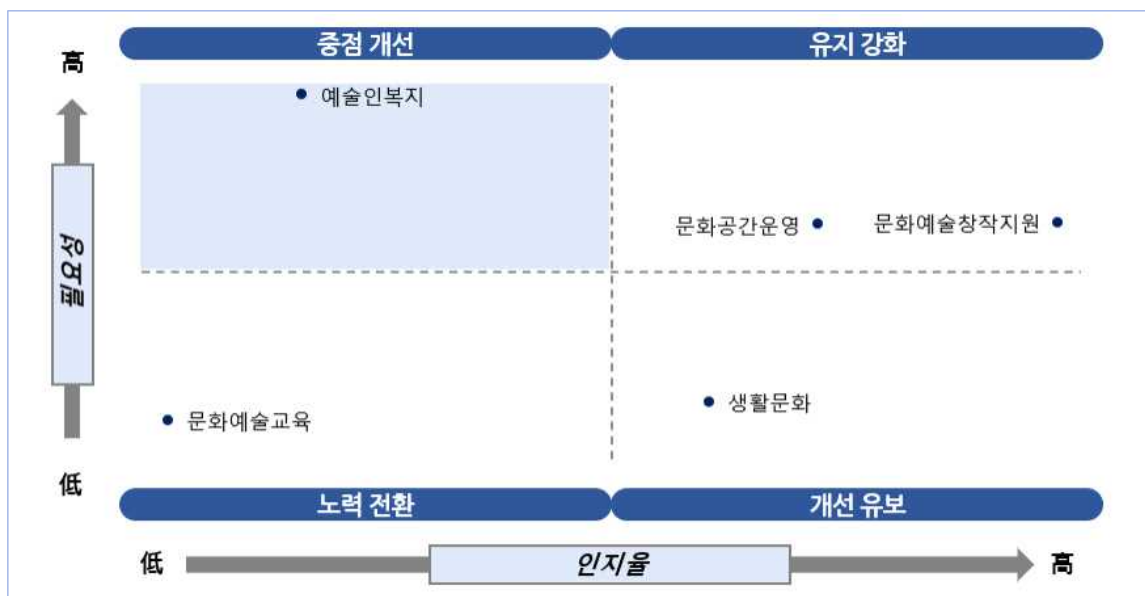
(단위 : %, 점)

구분	사례수	세부평가					종합평가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다양한 진로 제시	(5,309)	11.7	33.0	41.7	12.3	1.3	44.7	41.7	13.6	39.7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	(5,309)	10.2	32.6	42.8	12.3	2.0	42.9	42.8	14.3	40.8
동등히 일할 기회 제공	(5,309)	10.7	37.8	41.0	9.5	0.9	48.6	41.0	10.4	38.0
사회적 편견과 차별 의식	(5,309)	5.2	27.4	47.8	16.2	3.3	32.7	47.8	19.5	53.8
예술가 관리/발굴 프로그램 마련	(5,309)	10.1	39.1	41.7	8.0	1.1	49.2	41.7	9.2	37.8
창작 예술작품 발표 기회	(5,309)	8.7	30.5	46.3	12.5	2.0	39.3	46.3	14.5	42.1
차별적 관행	(5,309)	3.1	18.7	48.5	24.7	5.1	21.8	48.5	29.7	47.5

## 6. 예술정책 및 사회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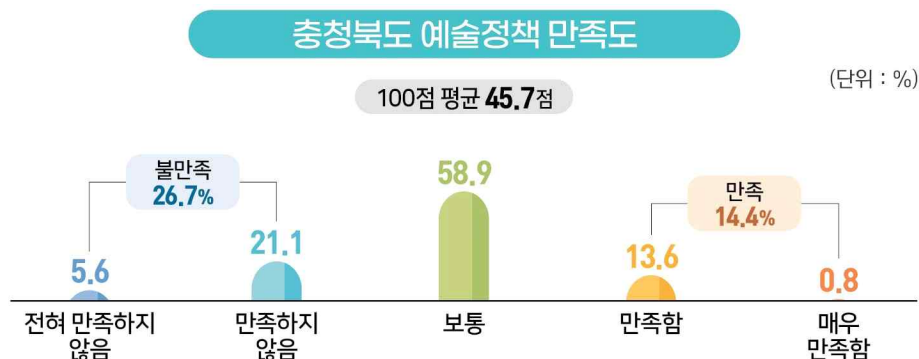
- 충북문화재단 지원사업 중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에 대해 가장 높은 인지율(58.9%)을 보인 반면, 예술인복지사업은 가장 높은 필요도(100점 만점 기준 80.8점)를 보임
  - 지원사업의 인지율/필요도에 대해 IPA 분석을 진행한 결과 중점 개선 영역은 예술인 복지, 유지 강화 영역은 문화공간운영, 문화예술창작지원임

[그림 2-9] 충북문화재단 예술인 지원 사업 인지율 및 필요성 IPA 분석



- 충청북도 예술정책에 대해 만족도는 100점 만점 기준 45.7점(만족 14.4%)으로 전반적으로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았음
  - 특히 장애 예술인의 만족도(40.0점)가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 2-10] 충청북도 예술정책 만족도



- 충청북도 예술활동 관련하여 보조금 사업 신청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신청 후 선정된 비율이 34.9%, 신청 후 미선정이 9.5%, 신청한 적 없음 55.6%로 조사됨
  - 예술활동 수행 지역이 청주/제천/충주시 외 군지역(61.1%), 예술분야가 시각 예술인(62.8%)은 신청 경험이 없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원 받은 내용은 주로 창작 활동 지원(83.2%)을 받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신청한 적 없는 예술인은 그 이유가 사업 존재를 몰라서(28.2%)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음

[표 2-13] 예술활동 관련 보조금 사업 신청 및 지원 경험 유무

(단위 : %)

구분		사례수	신청 후 선정	신청 후 미선정	신청한 적 없음
전 체		(5,309)	34.9	9.5	55.6
주 예술활동 수행 지역 (시군단위별)	청주시	(2,176)	37.8	10.2	52.0
	제천/충주시	(966)	38.2	10.4	51.4
	그 외 지역(군)	(2,167)	30.5	8.4	61.1
예술분야 대분류	문학 예술	(711)	40.1	19.8	40.1
	시각 예술	(1,788)	26.0	11.2	62.8
	공연 예술	(2,718)	39.1	5.8	55.1
	기타	(92)	44.4	3.8	51.8

- 충북문화재단의 예술인 지원 방향은 창작 예산지원이라는 의견이 1순위 기준 6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주 예술활동 지역이 청주시인 예술인은 창작예산 지원, 제천/충주시는 생활안정 지원, 군지역은 역량강화교육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예술 분야별로 문학 예술인은 창작예산 지원, 공연 예술인은 활동공간, 생활안정, 역량강화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충북문화재단이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예술활동 공간 확충, 예술 사업 다양화, 지원금 증액 등의 의견이 있음
  - 예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 찾아가는 공연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 유튜브 채널과 같은 미디어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
  - 지역문화발전에 기틀인 학교예술교육과 대학예술교육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
  - 지원사업 심사/선정에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 지원사업 홍보를 더 많이 해야한다는 의견 등이 있음

## 7. 코로나19의 영향, 비대면 콘텐츠 인식

- 코로나19로 인해 예술 프로젝트 중단/취소/연기 경험이 있는 예술인은 62.8%임
  - 특히 예술활동 수행 지역이 제천/충주시(72.4%), 예술분야가 공연 예술(75.8%), 연령이 낮고, 장애 예술인(77.4%)의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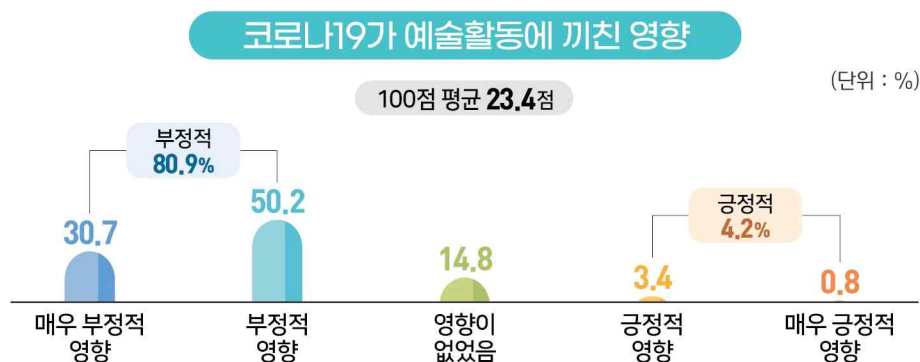
[표 2-14] 예술 프로젝트 중단/취소/연기 경험

(단위 :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5,309)	62.8	37.2
주 예술활동 수행 지역 (시군단위별)			
충주시	(2,176)	57.4	42.6
제천/충주시	(966)	72.4	27.6
그 외 지역(군)	(2,167)	63.9	36.1
예술분야 대분류			
문학 예술	(711)	45.2	54.8
시각 예술	(1,788)	49.5	50.5
공연 예술	(2,718)	75.8	24.2
기타	(92)	71.9	28.1
연령			
30대 이하	(798)	73.2	26.8
40대	(633)	72.4	27.6
50대	(1,694)	61.2	38.8
60대 이상	(2,184)	57.5	42.5
장애 여부			
비장애 예술인	(5,092)	62.2	37.8
장애 예술인	(217)	77.4	22.6

- 코로나19가 예술활동에 끼친 영향은 100점 만점 기준 평균 23.4점(부정적 80.9%)으로 대부분의 예술인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은 소득 하락이 43.5%, 도민의 예술 관련 관심도 하락이 40.6%로 조사되었고, 긍정적인 영향은 예술 활동 방법 증가가 4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그림 2-11] 코로나19가 예술활동에 끼친 영향



### Ⅲ.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1. 실태조사 결과를 통한 정책 방향성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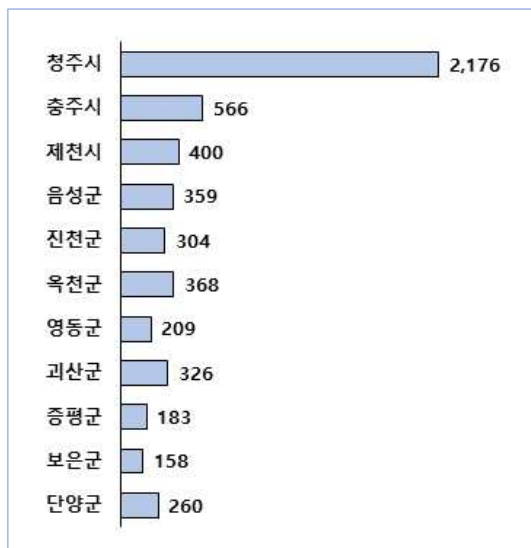
##### 가. 충청북도 예술인 주요 이슈

##### 1) 충청북도 예술인 인구통계적 특성

- [충청북도 예술인의 청주시 몰림 현상]** 충청북도 예술인의 41.0%가 청주시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접 지역인 강원도(춘천 26.5%), 충청남도(천안 거주 15.6%)지역과 비교하면 충청북도 예술인은 청주시 몰림 현상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공연장 상주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역쿼터제 등 지역 공연시설 가동률 제고 및 향유기회 확대 위한 사업 및 정책 기초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위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충청북도 예술인의 고령화]** 예술인의 연령이 대부분 고연령층(50대 이상 73.0%)으로 조사됨. 예술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연령층 예술인의 특성으로 인해 충청북도가 타 지역에 비해 적은 예술발표 횟수(예술작품 발표/참여 횟수), 낮은 지역문화 종합지수<sup>6)</sup>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고연령층의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지역 내 청년예술가 유입 및 활동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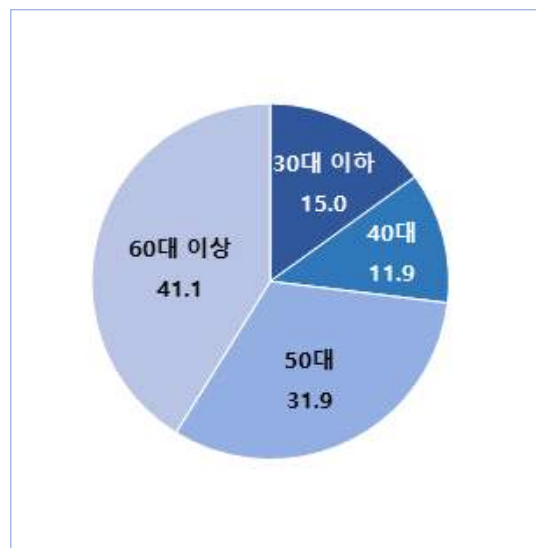
[그림 3-1] 지역별 활동 예술인

(단위 : 명)



[그림 3-2] 연령대별 활동 예술인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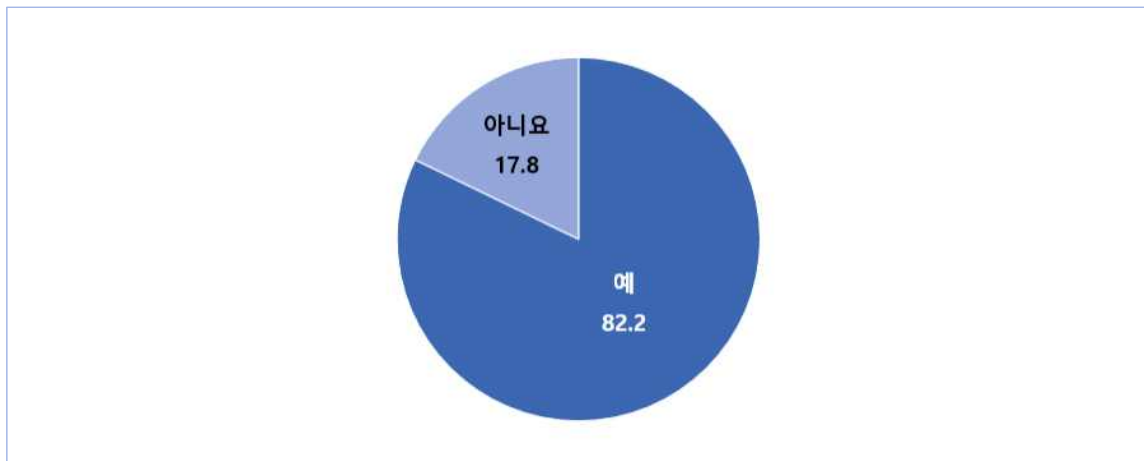
6) 연지민, 「충북도 지역문화 종합지수 '전국최하위」, 충청타임즈, 2022.02.15.

## 2) 예술 활동

- **[충청북도 예술인 단체 및 가입 현황]** 충청북도 예술인의 입문 경로는 단체활동 41.1%, 개인 활동 27.2%, 교육기관 24.3%로 단체활동을 통한 입문 비율이 높고, 예술인 단체/협회 대부분 가입(82.2%)되어 있는 충청북도 예술인 특성을 보임. 따라서 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간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업 그리고 일상적인 네트워킹 구축이 필요함

[그림 3-3] 예술인 단체 및 협회 가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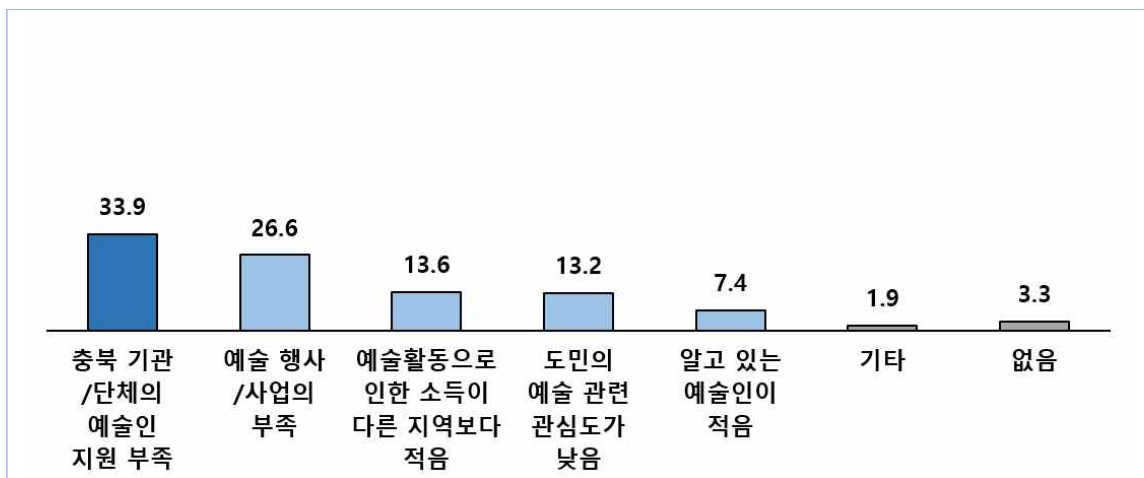
(단위 : %)



- **[지역 예술기관 및 단체의 예술인 지원]** 충북지역에서 예술활동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충북 기관/단체의 예술인 지원 부족이라는 응답이 3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기존 지방보조금 및 공모사업 이외에 지역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비 편성 및 운영 등 예술현장의 요청이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식이 필요함

[그림 3-4] 충북지역에서 예술활동 시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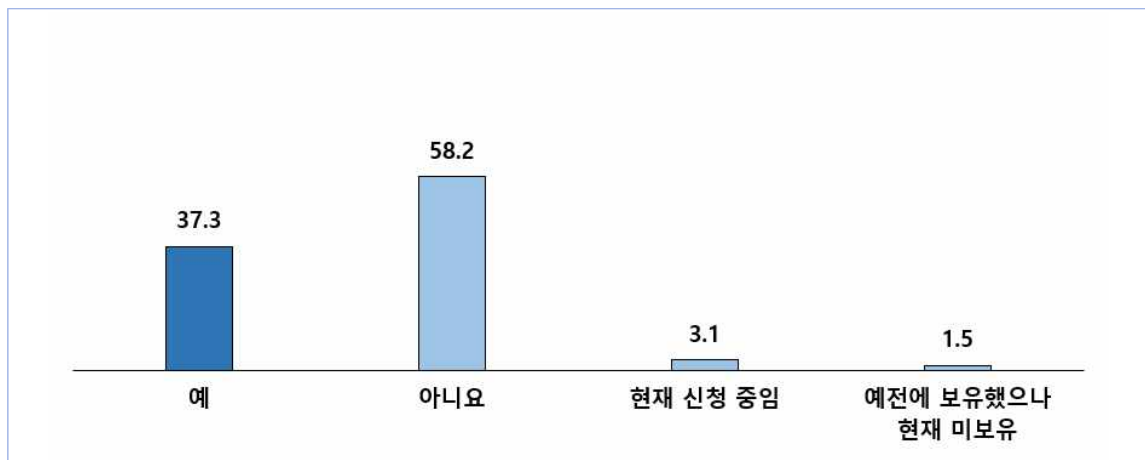


- [충청북도의 '예술활동증명' 보유율] '예술활동증명' 보유 비율은 37.3%로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충남 15.9%, 대전 27.4%, 강원 35.4%)을 보여 충청북도 예술 관련 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음.

하지만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하지 않은 예술인의 35.9%가 '예술활동증명'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고, 18.7%가 신청하는 법을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을 보였음. 또한 '예술활동증명' 관련하여 홍보 및 안내를 받을 의향이 있는 예술인이 77.1%로 조사 되었음. 따라서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미보유 예술인도 증명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림 3-5] '예술활동증명' 보유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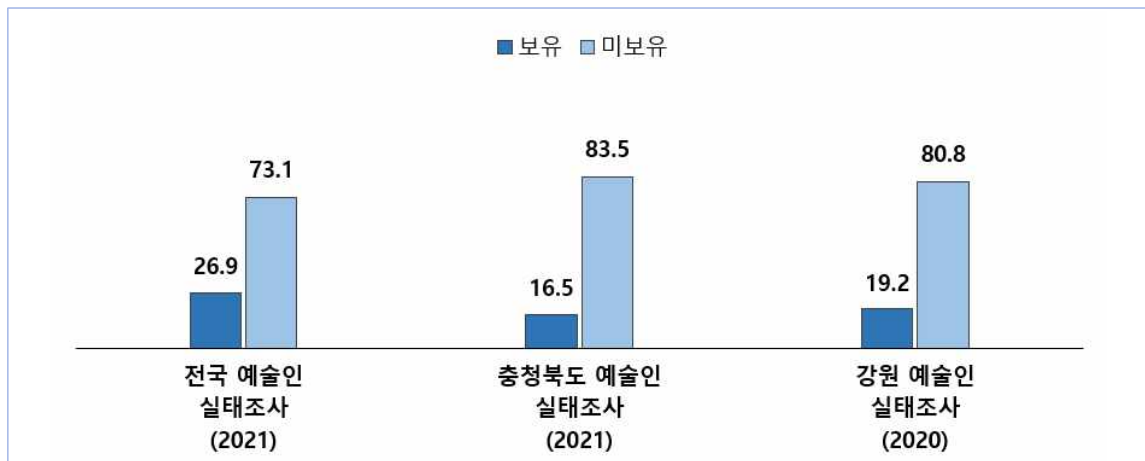
(단위 : %)



- 충청북도 예술인의 저작권 보유율은 16.5%이며 전국 26.9%, 강원 19.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작권의 특성상 충북지역은 상대적으로 창작물의 유통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3-6] 저작권 보유율 - 타 지역 조사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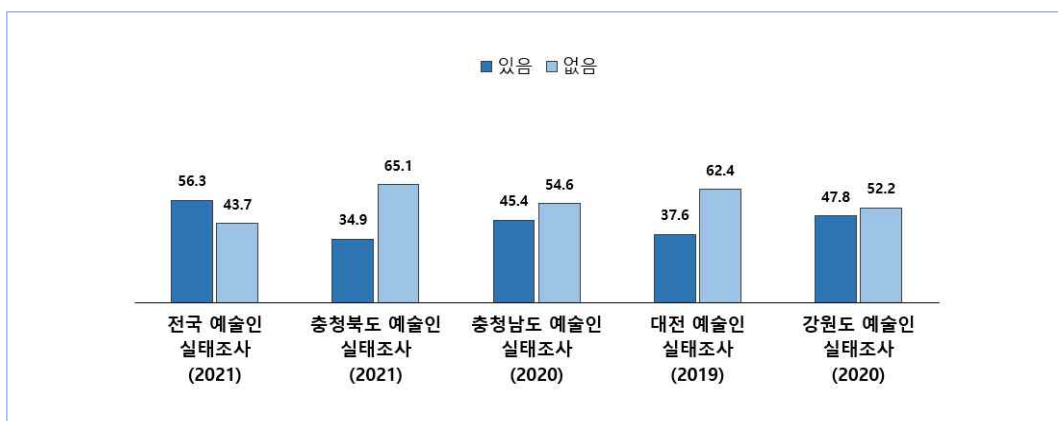


### 3) 창작공간 보유 및 예술활동 공간

- **[예술 활동 관련 공간 부족]** 충청북도는 예술 활동 관련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예술인의 응답이 본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드러났음. 개인 창작 공간 보유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충북 34.9%, 전국 56.3%, 충남 45.4%, 대전 37.6%, 강원 47.8%)으로 조사되었고, 창작/연습/발표/자료/예술인 커뮤니티 공간의 충분 정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100점 만점에 모두 30점 수준)을 보임. 따라서 예술 활동 관련 공간 확충이 중요한 충청북도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됨

[그림 3-7] 창작 공간 보유(자가 또는 임대) - 타 지역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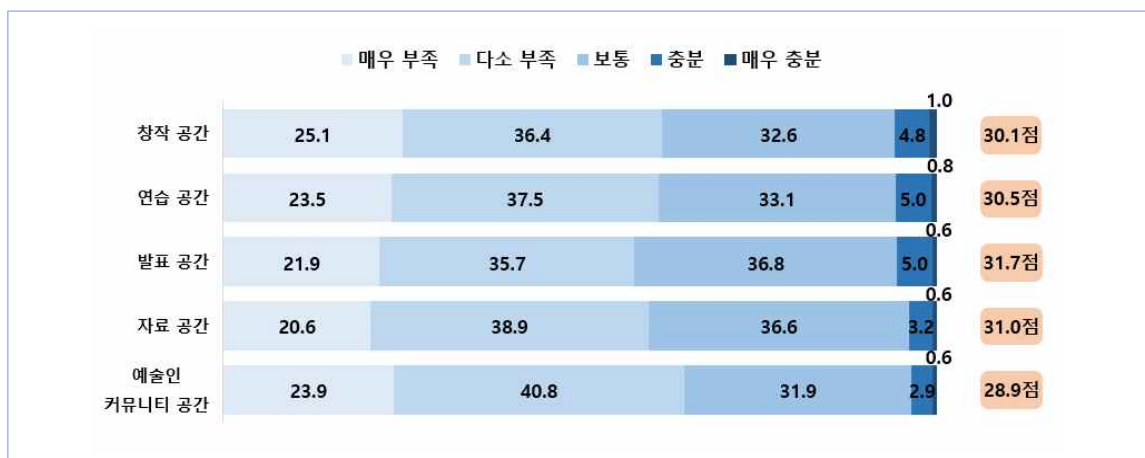
(단위 : %)



- **[예술 활동 관련 공간 이용 시 애로사항]** 예술 활동 관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공간의 노후화, 편의성 부족, 대관 절차의 어려움, 접근성 부족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 많은 의견을 보임. 따라서 공간 확충과 더불어 현재 활용되고 있는 공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그림 3-8] 예술활동 관련 공간이 갖추어진 정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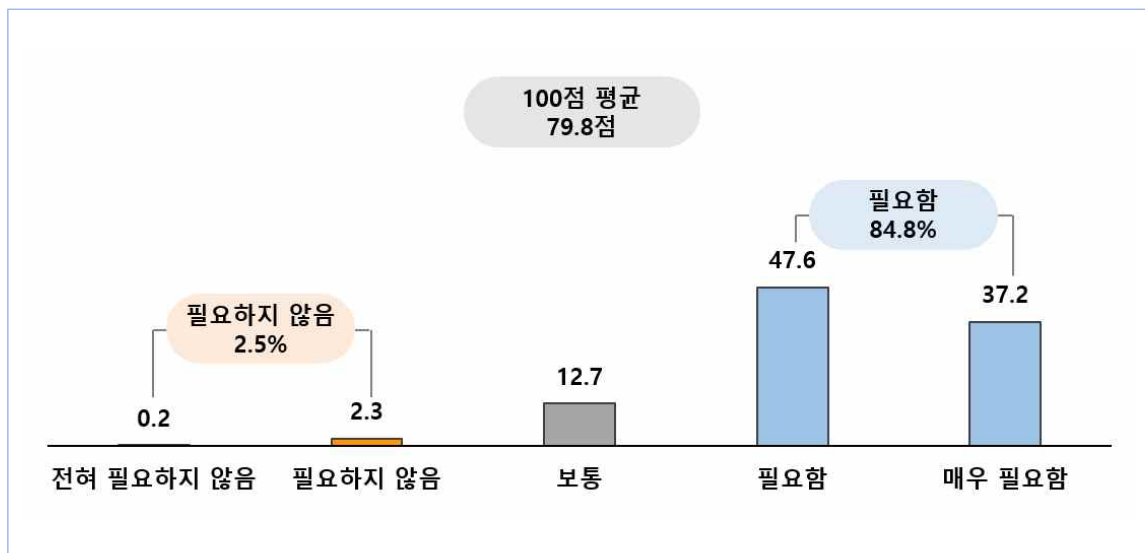


#### 4) 예술인 재교육

- [예술인 재교육 필요성 및 분야] 전문적인 예술교육의 필요도는 100점 만점 기준 평균 79.8점으로, 필요함 84.8%(필요함 47.6% + 매우 필요함 37.2%), 보통 12.7%, 필요하지 않음 2.5%(필요하지 않음 2.3% + 전혀 필요하지 않음 0.2%)으로 나타났으며 예술인의 예술교육 외 재교육에 대해 온라인 미디어 활용법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고, 홍보방법(매체 등), 예산운용법(집행 정산 등) 등의 의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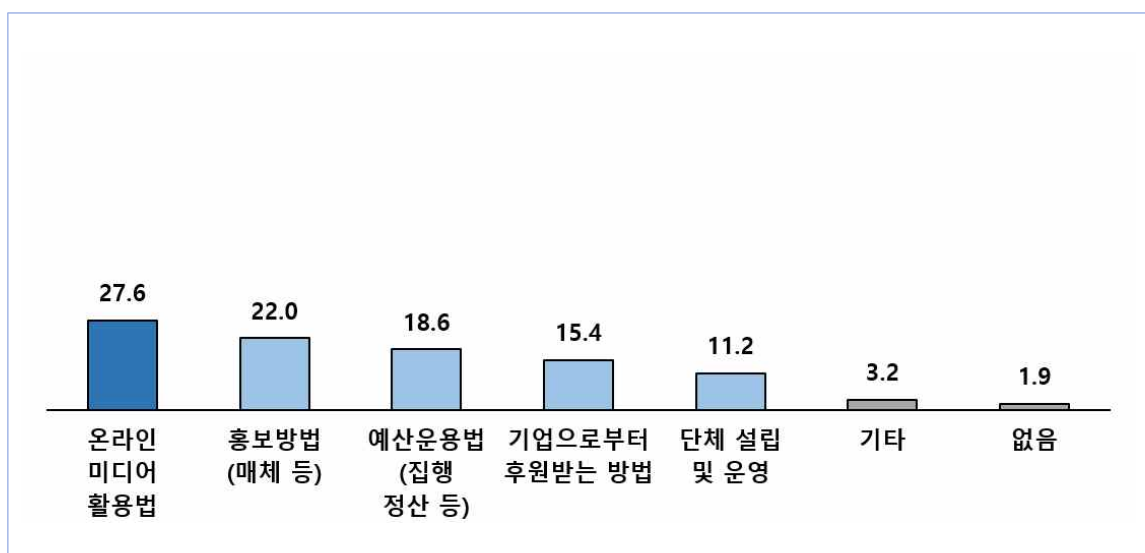
[그림 3-9] 전문적인 예술교육의 필요도

(단위 : %, 점)



[그림 3-10]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재교육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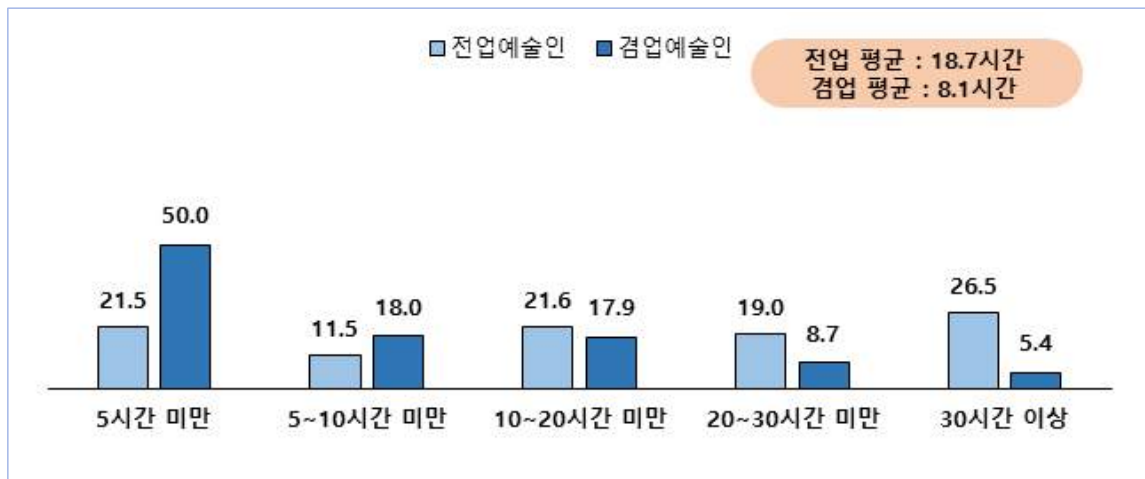


## 5) 전업 및 겸업 예술인

- [전업/겸업 예술인 예술활동 시간] 충청북도 예술인 중 전업 예술인의 비율은 51.7%로 전국 평균 55.1%에 비해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남. 겸업예술인의 일주일 평균 예술활동 시간은 5시간 미만이 50%이며 전업예술인의 경우 20시간 이상이 45.5%로 나타나고 있음. 전업 및 겸업 여부가 예술의 전문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예술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탁월성의 기준'(standards of excellence)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그림 3-11] 일주일 평균 예술활동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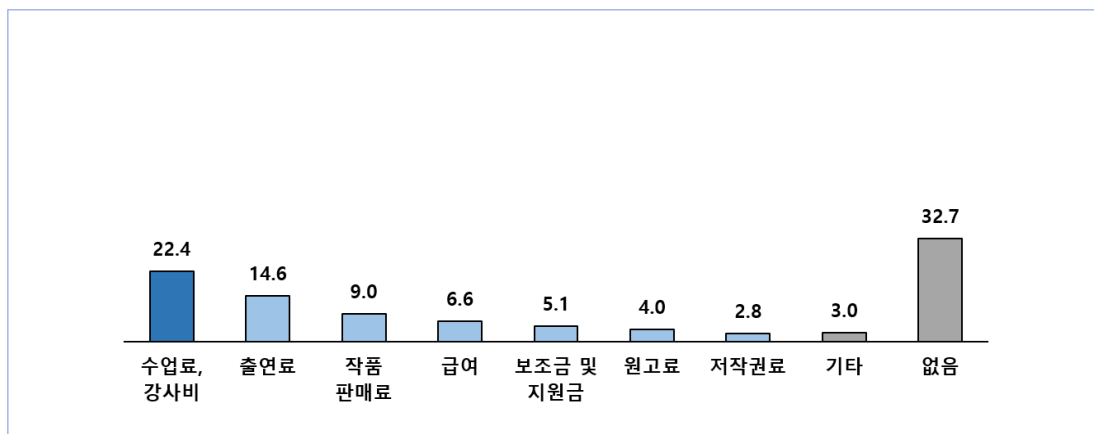
(단위 : %, 점)



- [예술활동 직업을 통한 소득원] 예술활동 직업을 통한 주요 소득원은 수업료, 강사비가 22.4%로 나타났으며, 출연료는 14.6%로 나타남. 예술소득이 없는 32.7%의 요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과 해석이 필요함

[그림 3-12] '예술활동 직업을 통한 소득'의 주된 소득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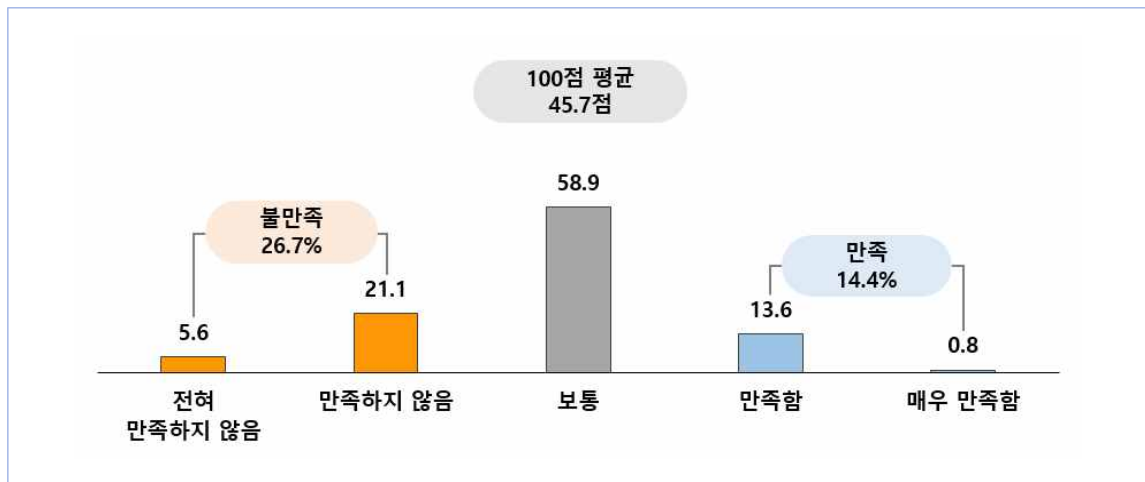


## 6) 충청북도 정책 만족도

- **[지역별]** 충청북도 예술정책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인식/지식 등이 부족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정책들이 많다는 의견을 보임. 이는 충청북도 예술정책 만족도가 평균보다 낮은 응답을 보인 항목은 지역의 경우 청주시(44.2점), 제천/충주시(42.8점)로 나타남
- **[장르별]** 장르는 시각 예술(44.8점), 공연 예술(45.9점)으로 나타남. 충북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주 활동 장르에서 대표적인 시각 예술 장르인 미술(19.5%)과 문학(13.4%), 공연장르의 국악(16.4%), 음악(15.2%), 연극(5.3%)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본다면 예술인의 약 70%는 충북의 예술 정책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 그리고 연령대가 높고, 장애가 있는(40.0점) 예술인이 상대적으로 불만족으로 인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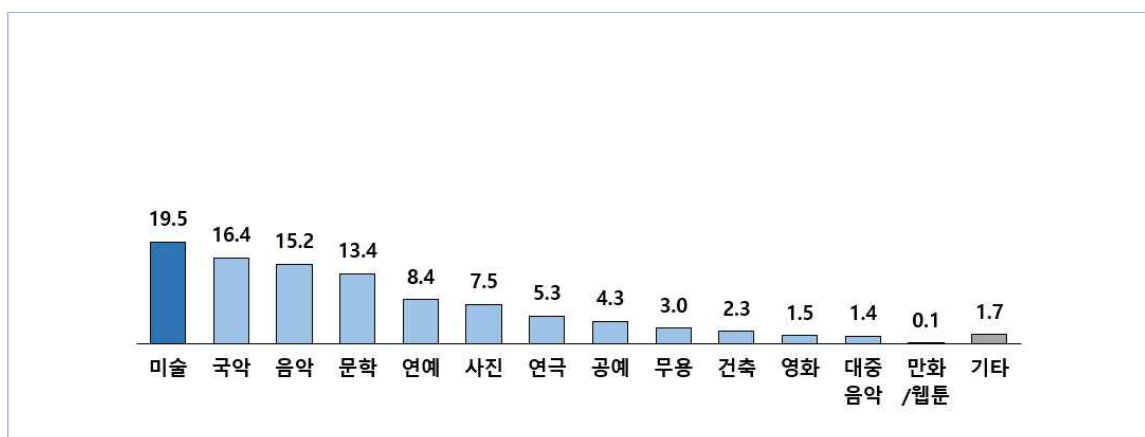
[그림 3-13] 충청북도 예술정책 만족도

(단위 : %, 점)



[그림 3-14] 주로 활동 중인 예술 분야

(단위 : %)



## 7) 충북문화재단 지원사업 방향

- [충북문화재단 지원 사업별 평가] 충북문화재단의 예술인 지원 사업 중 인지율은 낮지만 필요성이 높아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업은 예술인 복지사업임. 인지율이 높고 필요성도 높은 사업은 문화공간운영사업,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율이 낮고 필요성도 낮은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사업이며, 생활문화사업은 인지율은 높지만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인지도와 필요성은 예술정책의 공급자인 예술인의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며 정책 소비자가 체감하는 정책 효능감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업의 목적과 의도에 대한 이해정도에 따라 인지도와 필요성은 달라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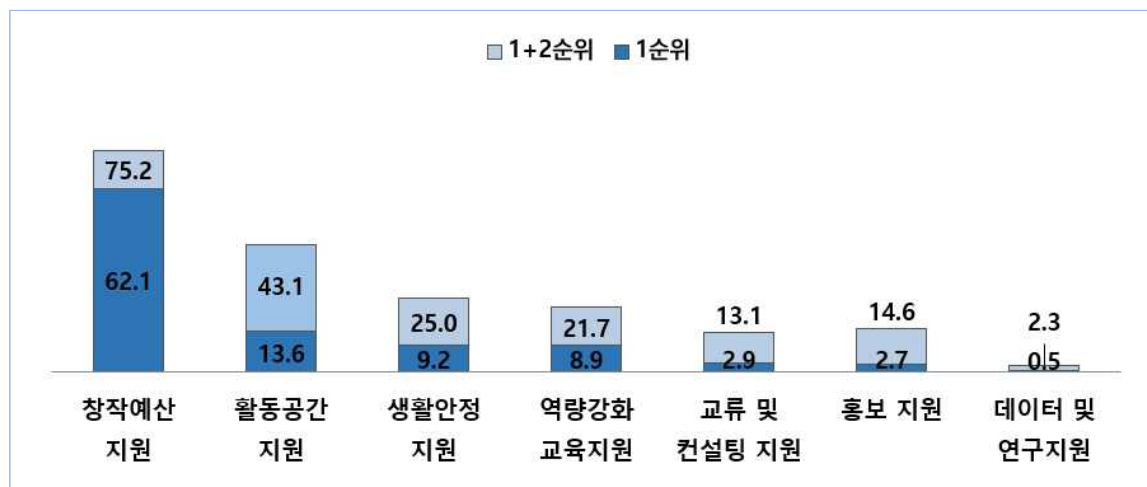
[표 3-1] 충북문화재단 사업의 인지도와 필요성

사업명	인지도	필요성
문화공간운영사업	높음	높음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	높음	높음
문화예술교육사업	낮음	낮음
생활문화사업	높음	낮음
예술인 복지사업	낮음	높음

- [충북문화재단 지원 사업별 방향] 충북문화재단이 지원했으면 하는 예술인 지원 정책은 1순위 기준으로 창작예산 지원이 6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활동공간 지원(13.6%), 생활안정 지원(9.2%), 역량강화 교육지원(8.9%) 등의 순임

[그림 3-15] 충북문화재단의 예술인 지원 방향

(단위 :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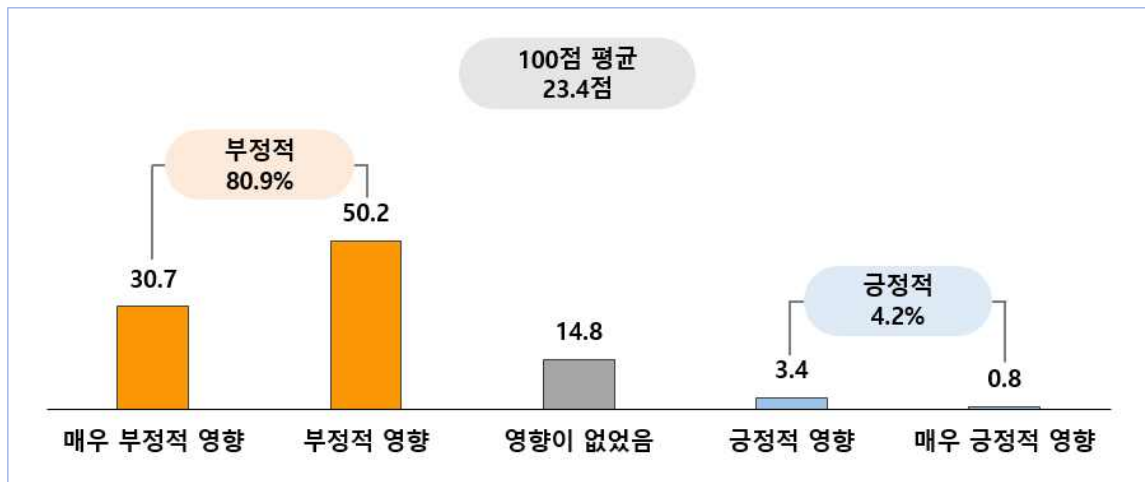


## 8) 코로나19의 영향, 비대면 콘텐츠 관련 인식

-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비대면 콘텐츠 관련 인식 현황] 코로나19로 인해 예술 프로젝트가 중단/취소/연기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인 62.8%이며, 코로나19가 예술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0.9%로 높음
- 중단/취소/연기된 예술프로젝트는 대체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콘텐츠로 대체되었으며, 코로나19가 예술활동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서 예술 활동 방법 증가라는 응답이 4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예술교육 외 재교육 중 가장 필요한 교육은 온라인 미디어 활용법(27.6%)임
- 창작방식의 변화 및 다양한 예술활동 방법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과 전용 스튜디오 등 온라인 콘텐츠 생산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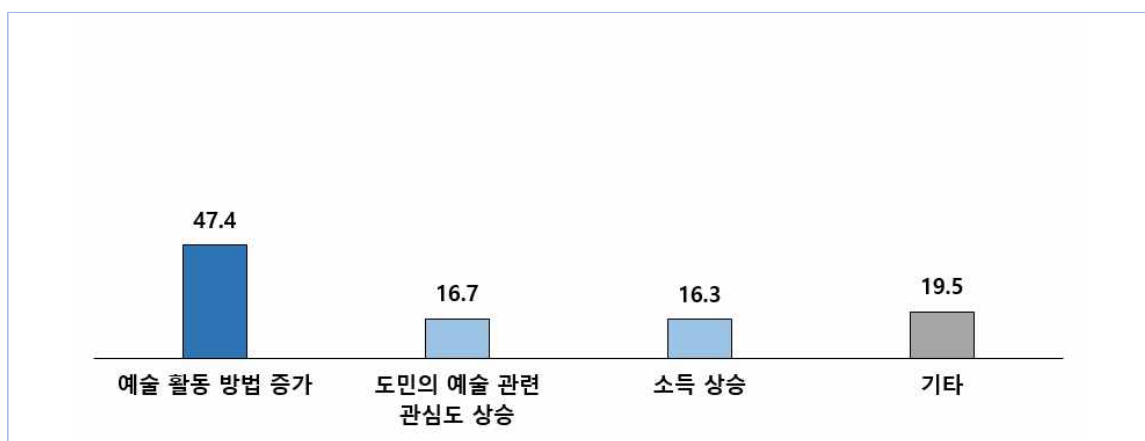
[그림 3-16] 코로나19가 예술활동에 미친 영향

(단위 : %, 점)



[그림 3-17] 코로나19가 예술활동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

(단위 : %)



## 나. 충청북도 예술인 활동 관련 문제점

- 충청북도 예술활동 관련하여 공간 이용 시 애로사항 중 예술활동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 예술활동 공간의 확충이 필요한 사안인 것으로 사료됨, 그 외 의견으로는 공간 대관에 대한 어려움, 공간의 편의성/접근성/편의성 부족, 도시와 군지역의 격차, 예술활동 공간에 대한 홍보/정보 부족 등의 의견이 있음
- ① 예술활동 공간 부족 :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체적으로 부족함, 창작/전시/연습/공연 공간이 복합적으로 되어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
- ② 예술활동 공간 대관 규정/절차 어려움 : 공간의 대관 규정/절차가 까다롭고 서류도 복잡하다는 의견, 공간이 부족함으로 인해 공간을 장기적으로 예약한 경우가 많아 신규 대관이 어려움
- ③ 예술활동 공간의 편의성 부족 : 충청북도에 설치되어있는 예술활동 공간은 대부분 노후화 되어있어, 주차 공간/방음 시설/장애인 편의 시설 등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함
- ④ 예술활동 공간의 접근성/지역균등 : 예술활동 공간이 대부분 교통외곽지역이어서 접근성에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 청주/충주/제천시와 같은 도시에만 공간이 몰려있고 그 외 지역에는 전시공간이 부족하고, 노후화 되어있다는 의견
- ⑤ 예술활동 공간 홍보/정보 부족 : 예술활동 공간의 홍보/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일원화된 플랫폼이 없다는 의견을 보임
- ⑥ 비용 부담 : 예술활동 공간의 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을 보임
- 충청북도 예술활동 관련 공간 이용 시 애로사항의 세부 응답은 아래 표와 같음

[표 3-2] 충청북도 예술인 활동 관련 문제점

구분	응답 내용 요약
공간 부족/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활동 공간이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못함(창작, 전시, 연습, 공연 등)</li> <li>• 규모별로 다양한 공간, 복합공간 확보가 필요</li> <li>• 공연장이 부족하며, 특히 준공연장이 없음(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져있지 않음)</li> <li>• 부분별로 창작 및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li> <li>• 전시공간 형식의 공간이 많고, 장르별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부족</li> <li>• 전시공간의 경우, 전시장의 높이나 설치물 디피의 제한, 벽면의 사용 제한 등으로 인해 제한적 작품 설치만 가능</li> </ul>
교류/소통 기회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 및 소그룹 활동에 필요한 공간 부족으로 인해 예술인들 간 소통 및 교류 기회가 부족함</li> <li>• 문화예술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및 사무실이 확보되지 않아, 예총산하 단체 문인협회, 사진작가협회의 경우는 임원이 자기 집에서 사무를 보는 경우도 있음(회원들의 회의 장소가 없어 식당 등을 이용하기도 함)</li> <li>• 타 단체와 공동 사용 공간이 있지만 단체 간 성격이 달라서 사용에 불편함</li> <li>• 커뮤니티 공간이 적어서 같은 직종의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움</li> <li>• 서로 다른 창작활동인에 대한 소통이 부족함</li> </ul>

시설/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 공간 부족</li> <li>출입 시간 제한이 있어서 자유로운 출입이 어려움(24시간 오픈되어 있는 연습공간 필요)</li> <li>장애인 편의 시설이 부족함(배리어프리시설)</li> <li>방음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음</li> <li>엘리베이터가 없고, 전시공간이 협소하거나 지저분함</li> <li>우천 시를 대비할 수 있는 장비나 시설이 필요(충주에는 우천 시 지붕이 씌워지는 공연장이 있음)</li> <li>여러 단체와 함께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 자유로운 공간활용이 어려움</li> <li>개인 작품을 보관 대행하는 곳 필요</li> <li>피아노 같은 악기가 관리되고 있지 않음(매번 조율 해야해서 비용이 발생함)</li> </ul>
절차/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관 규정 및 절차가 까다롭고 서류도 복잡함</li> <li>예약 관련하여 빠른 답변 및 대응이 되지 못함</li> <li>공간을 장기로 예약한 경우가 많아 신규신청이 어려움</li> <li>예술인의 창작 행위에 대해 공무원들의 이해가 부족하여, 마찰이 발생하거나 공연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음</li> <li>관계자 및 스태프들의 전문성이 부족</li> <li>문화예술활동 홍보를 위한 다양한 창구 필요(포스터나 전단지 등을 게재할 수 있는 공간 등)</li> <li>지원사업 등 좋은 사업들이 단체에 많이 집중되는 느낌이 있음(소속이나 단체에 가입되어있는 예술인으로만 한정되어 개인이나 소속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예술인에게도 공연이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li> <li>어린 자녀를 둔 예술가들을 위한 야간 돌봄서비스가 필요(공연 활동이나 연습 등이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음, 서울의 경우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중에 야간 돌봄 서비스가 있음)</li> <li>예술인 등록증 교부 방법이 어렵고 복잡해 간편화 필요</li> </ul>
접근성/지역균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부분 교통외곽지역이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함</li> <li>균등하게 지역별로 분포되어있지 않음</li> <li>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예술활동 공간이용시설의 시설부족 차이가 많음</li> <li>청주·충주등의 도시에만 전시공간이 몰려 있고, 그 외 지역의 공간은 노후화되어 있으며 거의 다목적으로 사용(전문적인 전시공간 부족)</li> <li>북부권지역의 활동공간, 정보, 교육 및 활성화 지원미흡</li> <li>농촌 지역의 경우 예술활동 공간이 매우 제한적임</li> <li>새로 생긴 신도시나 군소재지에는 예술활동공간이 없거나 한정적</li> </ul>
홍보/정보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간에 대한 정보를 찾는것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정보 탐색이 어려움</li> <li>어느 곳에 어떤 곳을 이용할 수 있는지 공간의 규모, 위치, 비용 등을 한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예술공간 사용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면 좋겠음)</li> <li>정기 또는 수시로 예술인 관련 간행물을 전 회원에게 제공하였으면 좋겠음</li> </ul>
비용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간 대여 비용이 부담스러움</li> <li>무료 발표공간 부족</li> </ul>



## 다. 충청북도 예술사업 및 정책에 대한 의견

### 1)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불만족 사항

- 충청북도 예술사업 및 정책에 대해 지원 사업/정책의 예산/규모가 충분치 않아 전체적으로 미비하다는 의견이 많아 예술정책/사업에 대해 예산/규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며, 소수집단 예술인이 지원받지 못한다는 의견, 사업 지원에 있어 진입장벽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음
- ① 지원사업 미비 : 기본적으로 예술사업/정책에 대한 예산/규모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에 따라 충청북도 예술인을 위한 예술활동 공간이 부족하고 예술정책/사업의 실질적인 혜택, 현실성, 일관성,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보임
- ② 제한적인 지원 : 장애 예술인, 소외지역 예술인, 비전문가 예술인, 신진 예술인 등 소수 집단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보임
- ③ 높은 진입장벽 : 예술사업/정책에 대한 지원 절차가 까다롭고, 신규 진입이 어려우며 지원 기준도 매우 모호하다는 의견을 보임
- ④ 예술인에 대한 낮은 이해도 : 예술사업/정책이 예술인 특성, 충청북도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음
- ⑤ 그 외 의견 : 예술사업/정책에 대해 홍보와 안내가 부족하고, 기획의 형평성, 예술인 복지 제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등의 의견이 나타남
- 충청북도 예술사업/정책 관련하여 불만족 사항의 세부 응답은 아래 표와 같음

[표 3-3] 충청북도 예술사업 및 정책에 대한 불만족 사항

구분		응답 내용 요약	
지원 정책/사업 미비	예산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금이 부족함</li> <li>• 예산이 투명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사업 규모가 작음</li> </ul>
	공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공간이 부족함</li> <li>• 대관이 어려움</li> <li>• 사무실이 부족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근성이 부족함</li> <li>• 대관료가 비쌈</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질적 혜택을 받은 것이 없음</li> <li>• 현실성이 없음</li> <li>• 정책에 일관성이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이 구체적이지 않음</li> <li>• 정책이 다양하지 않음</li> <li>• 지원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li> </ul>
제한적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진예술가 및 개인이 자리 잡기 힘들</li> <li>• 장애인 예술가에 대한 지원이 전무함</li> <li>• 선정 인원이 적음</li> <li>• 학생들 위주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외지역과 노인교육에 지원이 부족함</li> <li>• 비전문가 예술인에 대한 정책이 미비함</li> <li>• 편파적으로 지원됨</li> <li>•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없음</li> </ul>

높은 진입장벽/모호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절차가 까다로움</li> <li>• 신규 진입이 어려움</li> <li>• 개인이 활용하기에 장벽이 많음</li> <li>• 기준이 모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인의 기준 애매모호함</li> <li>• 실제로 예술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부족함</li> </ul>
예술인에 대한 낮은 이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이 부족함</li> <li>• 의회에서 관심이 적음</li> <li>• 문화예술의 중요성 인식이 결여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임</li> <li>• 시민의식이 부족함</li> </ul>
홍보 및 안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통이 폐쇄적임</li> <li>• 정책에 대해 알지 못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li> </ul>
형평성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회가 불공정하게 주어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공정한 예산 지원</li> </ul>
예술인 복지제도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 부족으로 생계가 힘들어서</li> <li>• 일한만큼 벌 수 있는 환경이면 좋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함</li> <li>• 지원은 하되 자가 생산이 가능한 구조로 변했으면 함</li> </ul>

## 2) 충청북도 사업 및 정책 방향 대한 예술인 의견

- 충청북도 예술인 사업/정책에 대한 의견은 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원에 대해 가장 많은 의견을 보였는데 특히 예술활동 공간에 대해 충청북도 예술인의 많은 지원 요청이 있었음. 그 외에 예술활동 관련 예술인 온라인 커뮤니티, 코로나19로 인한 미디어 사업, 예술활동 지원금, 예술인 교육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심사 공정화, 문화예술 행사/사업에 대한 홍보 등의 의견을 보임
- ① 예술활동 지원 관련 : 충청북도의 예술활동 공간 지원(노후화, 부족 등)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예술 동아리/단체 등 집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도심지역뿐만 아니라 군지역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예술활동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타남
- ② 예술 사업 관련 : 충청북도 예술인 현실에 맞는 지원 사업이 필요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미디어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 찾아가는 공연/문화사업 확대, 타 국가, 타 도시의 좋은 사업을 참고하여 사업을 만들어야한다는 의견 등이 나타남
- ③ 예술활동 지원금 관련 : 예술인 기본소득 보장, 최저생계비/보조금/인건비 지원 등 예술인에 대한 복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임
- ④ 예술인 교육 관련 : 현재 충청북도에 예술인 교육시설이 부족하여 예술가 발굴/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예술교육기관과 예술교육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예술 활동이 많아질 수 있어 미디어 교육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임
- ⑤ 예산 관련 : 전반적으로 예술인 사업/정책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예술인이 많은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과 예산을 예술인 현실에 맞게 적절히 사용해야한다는 의견을 보임

- ⑥ 사업 심사/선정 기준 관련 : 예술인 관련 사업이 대체로 충청북도에서 크거나 잘 알려져있는 단체만 선정이 되어 심사의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소수집단의 예술인(젊은 예술인, 비전공자 예술인 등)에 대해서도 따로 명목을 만들어서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을 보임
- ⑦ 문화예술 행사/사업 홍보 관련 : 문화예술 행사/사업 관련하여 예술인들에게 수시로 문자나 카톡으로 홍보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과 충청북도 도민들에게 문화예술을 미디어 활용하여 문화예술 접하기, 문화예술을 감상하는 법 등에 대해 홍보/교육하여 도민들이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보임
- ⑧ 그 외 의견 : 기타 의견으로는 예술인 사업 지원 절차의 간소화, 문화예술인 워크숍을 통한 교류 지원, 예술인 처우 개선, 지원 사업의 지역 쿼터제 도입 등의 의견을 보임
- 충청북도 예술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세부응답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4] 충청북도 예술사업 및 정책에 대한 예술인 의견

구분	응답 내용 요약
예술활동 지원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활동 공간이 노후화 됨(60여년 된 문화관에 주차장도 없음)</li> <li>• 작업 환경 지원과 각종 공간 지원</li> <li>• 창작공간, 발표공간, 교육공간 보충 확대</li> <li>• 개인보다는 동아리나 단체에게 지원이 필요</li> <li>• 프리랜서나 예술인들 생활안정 지원</li> <li>• 예술인들이 수시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li> <li>• 숨어 있는 문화예술의 인재 발굴에 노력 필요</li> <li>• 코로나19로 집단공연이 어려움으로 소규모로 찾아가는 공연문화 지원</li> <li>• 군단위 지역에도 문화활동 필요</li> <li>• 한, 두명 집중지원보다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과 지원 필요</li> <li>• 공간공유, 협업 및 정보공유 등 커뮤니티 필요</li> <li>• 청년예술인과 지역원로예술인과 연계 지원</li> </ul>
예술 사업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공헌 활동 시간을 보충 필요. 연말에도 채울 수 있도록 개선</li> <li>• 현실에 맞는 예술정책 개선 및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 혜택 지원</li> <li>• 작품판매 및 홍보지원</li> <li>• 유튜브 채널과 같은 미디어 사업 필요</li> <li>• 찾아가는 공연/문화사업 확대</li> <li>•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 필요</li> <li>• 실효성있는 축제 필요, 매년 했던 행사를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타 국가, 타 도시 등의 좋은 점을 배우고 새로 기획하고, 또한 지방임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예술 콘텐츠의 형태가 느리게 전파되는 것을 보아 신진예술의 유입속도를 가속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li> <li>• 국제적 문화교류 필요</li> <li>• 충북 뿐만 아니라 충북과 인연이 있는 타 지역 예술가들도 충북에 유치할 수 있는 신진 및 기존 예술가의 활성화 필요</li> </ul>

예술활동 지원금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선별해서 지원금 지급</li> <li>• 예술인 기본소득 보장 필요</li> <li>• 전반적인 보조금 증액 필요</li> <li>• 예술인에 대한 창작지원금과 다양한 예술활동 공간 확충</li> <li>•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 타 지역처럼 충청북도 내의 예술인들한테도 별도의 지원금 필요</li> <li>• 인건비 지원 필요</li> <li>• 예술인 최저생계비 지원 필요</li> </ul>
예술인 교육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강화, 시민교양강좌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대 필요</li> <li>• 교육기관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li> <li>• 대학교육시설의 부재로 후임 예술가들의 발굴이 필요함</li> <li>• 미디어교육 체계적으로 필요, 야간강좌가 필요</li> <li>• 예술강사 역량강화 교육</li> <li>• 지역문화발전의 기틀인 학교예술교육과 대학예술교육 신설이 필요</li> <li>• 역량강화 교육을 많이 하고, 신청 방법 및 정산 등 서류작성 방법들을 알기 쉽게 교육해서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함</li> </ul>
예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공연이 많았으면 좋겠음</li> <li>• 타 예산에 비해 예술지원예산은 탁상행정예 그치고 실현이 되지 않음</li> <li>• 개인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을 가족단위로 평가하다보니 부모님의 영향에 의해 못받음. 평가 기준을 개인평가로 바꿔야 함</li> <li>• 사무처의 기능과 예산지원을 확대하여 열악한 환경의 예술인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li> <li>• 협회나 지인의 눈치를 보지않고 기금을 투명하게 운영 필요</li> </ul>
사업 심사/선정 기준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을 할 때 항상 크거나 잘 알려진 단체에서만 사업을 가져감</li> <li>• 사업의 심사의 공정성 절실함. 특정 단체에서 주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그 단체 아니면 못 받는 경우가 많음</li> <li>• 지원금을 받는 단체가 일부 정해져 있음</li> <li>• 젊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해 따로 명목을 만들어 지원이 필요</li> <li>• 공연장 상주단체 선정은 재단에서 1차 선정 후 지자체의 2차 선정 방법 건의</li> <li>• 공동창작이나 지역특성화 등 금액이 큰 사업 선정은 작품을 잘 만들수 있는 단체로 선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음</li> <li>• 비전공자에 대한 인식변화 필요</li> <li>• 나눠주기식 그리고 지연으로 인한 지원 선정 지양</li> </ul>
문화예술 행사/사업 홍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작 및 예술문화활동 홍보 강화</li> <li>• 미디어 활용을 잘못하는 세대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홍보 방법을 다양화해서 문화예술에 모두가 접근할 기회 필요</li> <li>• 홍보와 시민을 위한 행사는 하지만 시민과의 소통이 되지 않음. 단순한 음악, 미술 등을 감상하는 법, 예술 관련 배경을 이해하는 교육 등을 하여 시민이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필요</li> <li>• 예술인에게 필요한 안내 사항을 개인별 문자나 카톡으로 수시 홍보 필요</li> </ul>
그 외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지원 절차의 간소화 필요</li> <li>• 문화예술인 워크숍을 통한 교류 지원을 마련</li> <li>• 충북지역에 맞는 차별화된 콘텐츠개발사업 필요</li> <li>• 공연, 전시장 시설 미비</li> <li>• 지원 사업의 쿼터제 필요</li> <li>• 예술인 직업 보장, 처우 개선</li> </ul>

## 라. 충청북도 예술사업 및 정책의 방향성



[표 3-5] 충청북도 예술사업 및 정책의 방향성의 개념 및 의미

개념		의미
사람	전문예술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술작품 창작 및 예술상품 유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예술인
	생활예술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예술작품 창작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예술인
	예술전문인력	문화예술분야 정책 전문가, 문화예술 연구기관의 연구원, 문화예술 현장의 기획자 등
공간	창작공간	개인 및 단체의 예술활동 및 창작을 위해 필요한 공간
	유통공간	공연장, 전시장 등 창작물의 유통을 위해 활용되는 공간
	커뮤니티공간	소규모 공동창작실, 공동연습실 등 예술인의 일상적 공간
시간	전문성	예술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또는 예술성을 기반으로 전개되는 사업
	일상성	예술의 대중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또는 참여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전개되는 사업
	지속성	예술의 전문성 및 참여기반이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지원 또는 사업

## 1) 예술분야 인력양성 및 활동기반 조성

- **(실태조사 결과)** 충청북도 예술인 고령화 및 전문적인 예술교육 수요가 높음
  - 충북지역 예술인의 연령이 대부분 고연령층(50대 이상 73.0%)으로 조사됨
  - 전문적인 예술교육의 필요도는 100점 만점 기준 평균 79.8점으로 나타남
- **(도내 현황)** 기초예술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과 예술현장을 지원하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필요
  - 충청북도 사립대학의 기초예술과 순수예술 학과를 폐지하거나 축소
  - 문화예술분야 연구기관 및 인력이 부족함
  - 예술활동과 예술단체 운영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등 공공서비스 필요
- **(충청북도 예술관련 학과 현황)**

[표 3-6] 충청북도 예술관련학과 현황

구분	대학교	대학 및 학부	학과
사립	청주대학교	예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공예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연극학과, 영화학과, 비주얼아트학과, 음악과
	서원대학교	미디어융합대학	웹툰콘텐츠학과, 디자인학과
		휴먼서비스대학	음악과, 공연영상학과
	건국대학교(충주)	디자인대학	조형예술학과
	극동대학교(음성)	미디어 예술대학	디자인, 만화애니메이션, 미디어영상제작학과, 연극·연기학과
	중원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	연극영화학과
국립	세명대학교	인문예술대학	공연영상학부, 연기예술학과, 영화웹툰애니메이션학과
	한국교통대(충주)	인문사회대학	음악학과
	충북대학교	융합학과군	조형예술학과, 디자인학과

- **(추진과제 방향)** 전문예술인 양성 및 활동기반을 강화하고 예술의 일상성과 전문성이 상호 보완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역 예술생태계 조성
- **(전문예술인)** 기초예술분야 전문예술인을 양성할 수 있는 예술교육 환경조성과 타 지역의 청년예술인이 유입되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개방적 환경조성 필요
- **(생활예술인)** 참여기반 및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지원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지원
- **(예술전문인력)** 문화예술이론 연구, 지역 문화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연구기관 신설 및 확대 개편 함으로써 연구인력을 양성해야하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획자, 문화예술매재자를 양성 하는 지원과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2) 예술 공간의 목적 및 기능별 세분화

- **(실태조사 결과)** 개인 창작 공간 및 예술공간 부족
  - 개인 창작 공간 보유율은 34.9%로 전국(56.3%) 및 인접 광역자치단체 대비 낮은 수준 (대전 37.6%, 충남 45.4%, 강원 47.8%)
  - 가장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창작 공간'이 28.0%로 가장 높음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필요 15.5%)
  - 창작, 연습, 발표, 자료 공간 모두 부족(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부족 64.6%)
  - 예술공간 관련 애로사항 多(전체적인 공간 부족, 공간 대관/규정 절차 어려움, 공간 노후화 /편의시설 부족, 접근성 부족 및 지역 불균형 등)
- **(도내 현황)** 도립미술관 등 전문 공연·전시관 필요
  - 공공공연장 21개, 민간공연장 6개 등이 운영 중이나 전문공연장 부족함
  - 1995년 설립된 예술의 전당은 자체 공연으로 대관의 어려움
  - 도립미술관은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없음
  - 전문 공연·전시시설의 청주시 편중 심화
- **(타 지역 참고자료)**

[표 3-7] 지역(도단위)별 문화시설 현황

문화시설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공도서관	286	59	50	63	63	71	69	75	22
박물관	128	96	44	58	42	64	76	76	62
미술관	54	20	11	8	18	35	11	10	21
문예회관	44	23	12	18	17	21	27	22	3

- **(추진과제 방향)** 예술공간을 창작공간, 유통공간, 커뮤니티 공간으로 세분화하여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재배치
- **(창작 공간)** 충북 도내 개인 및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창작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접지원
- **(유통 공간)** 청주, 충주, 제천 등 시지역에는 중소규모 전문 공연·전시시설을 마련 설립함으로써 지역 불균형 해소 및 군지역의 공간 수요 해소
- **(커뮤니티 공간)**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별 소규모 공동 창작 공간, 연습실 등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협단체 중심의 커뮤니티 이외에 협단체 미가입 예술인을 포괄할 수 있는 예술인 커뮤니티 마련

### 3) 온라인 콘텐츠 전용 오픈스튜디오 건립

- **(실태조사 결과)** 온라인 미디어 활용법에 대한 교육 수요
  -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재교육으로 '온라인 미디어 활용법'이 27.6% ('홍보방법' 22.0%, '예산운용법' 18.6%, '기업으로부터 후원받는 방법' 15.4% 등의 순)
  - 특히 장애 예술인은 예술 활동할 기회가 적어 온라인 미디어 활용을 통한 예술 활동을 그 대안으로 고려(장애 예술인 심층 인터뷰)
- **(도내 현황)**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21-2040), 충북영상위원회 설치 계획
  -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中 전략 4-1(일상이 문화가 되는 격조 높은 지역 구현)의 추진과제로 '지속 가능한 新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 육성'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플랫폼 활용으로 새로운 문화 수요 대비, 스마트 공연/전시장 구축, 디지털 환경 적응을 위한 예술인 교육, 새로운 문화 기술 실현을 위한 문화 벤처 육성 등을 제시)
  - 충북영상위원회 설치 계획 : 영화 영상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포함
- **(타 지역 참고자료)**
  - 2021 예술인복지증진센터운영사업(전북문화관광재단) : 계약 및 저작권 교육, 문화예술계 성평등·성폭력 예방 교육, 예술인 근로계약 및 고용보험,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예술 활동, 문화예술 지원 사업 활용 가이드 등을 교육
- **(추진과제 방향)** 온라인 콘텐츠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콘텐츠의 양적 질적 향상 제고
  - 공연 프로그램 뿐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콘텐츠 생산이 가능한 공간 확보
  - 현장예술과 콘텐츠 관련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신진예술인과 중견 예술인 간, 예술 분야 간 교류 활성화의 장으로 역할도 고려
  - 계약 및 저작권, 근로계약 및 고용보험 등 예술인 대상 콘텐츠 보급
  - 뉴미디어 및 온라인 사업 및 문화예술 지원사업 정보제공 및 가이드 등 예술인 대상 교육 콘텐츠 보급
  - 내용적으로 비대면 예술 활동, 신기술을 접목한 예술 활동 등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필요로 하는 교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수집 필요



#### 4) 예술활동의 지속성을 위한 기초 문화재단 역할 강화

- (실태조사 결과) 대다수 예술인의 주 활동 지역 '청주' 중심
  - 충북 내 주 예술 활동 지역으로 '청주시'(41.0%), '8개 군'(40.8%), '제천/충주시'(18.2%) 순서임
  - 인구 구성비 '청주시' 53.1%, '8개 군' 25.5%, '제천/충주시' 21.3%
- (도내 현황)

[표 3-8] 기초문화재단 도내 현황

기초문화재단	설립	비고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2001년	청주시문화사업단에서 개편
종원문화재단	2006년	설립허가 기준
영동축제관광재단	2017년	창립총회 기준
제천문화재단	2019년	설립허가 기준

- (타 지역 참고자료)
  - 지역 문화 생태계 지원 N개의 서울(서울문화재단) :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각각의 지역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으로 2021년 24개 자치구 참여
  - 2022년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 시·군과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문화예술 기관과 단체, 지역사회 주민들이 상호 협력하는 민관협력 공동체 구성과 추진에 시·군당 최대 2억 원(도비 1억 원 포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주시, 의정부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등 5곳을 선정
- (추진과제 방향) 기초자치 단체별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강화를 통한 문화자치 기반 조성
- (기초문화재단 역할 제고) 청주시는 문화산업진흥, 영동군은 축제관광을 주 목적으로 하며, 통상적 기초문화재단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거나 문화예술업무가 미비함
- (지역 기초예술의 지속가능성) 지역 문화 법·제도 개선과 기본계획 수립, 기초 데이터 생산·구축 등 지역 문화 자치를 위한 기반 구축
  - 예술인(단체) - 지역주민 - 지자체 등 지역 문화 주체 간의 협력 체계 마련
  - 예술인(단체)과 지역주민 등 문화예술 주체들 간의 협력과 소통을 위한 창구 마련
-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거점 기초문화재단) 충청북도의 생활권은 크게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볼 수 있음. 기초문화재단이 각 권역별 거점 문화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5) 예술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법률·행정제도)** 예술인 복지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등

(관련 조항)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의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육성 지원, 포상 등

(관련 조항)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제8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 제12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 **(실태조사 결과)** 직접적인 창작 지원 예산 확대 요구
  - 충북문화재단의 예술인지원 방향으로 ‘창작 지원 예산’이 62.1%(1순위 기준)
  - 지난 3년간 예술 활동 전업률은 51.7%(전국 55.1%, 대전 53.3%, 강원 40.3%)
  - 지난 3년간 예술 활동 겸업 이유로 ‘낮은 소득’(39.8%), ‘불규칙한 소득’(26.4%) 등 경제적 이유가 60%를 상회 (‘고용 불안정’ 11.7%, ‘열악한 작업 환경’ 7.3% 등의 순)
- **(도내 현황)** 충청북도 문화예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형식적 기구화
  - 충북문화재단 정책협력위원회는 충북에서 활동하는 장르별 단체 소속 및 개인 예술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술지원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실무 협의 기구임
  - 충청북도의 문화예술 정책은 지자체 단체장의 공약 또는 외주용역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취합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추진과제 방향)** 현장예술인, 충북도청 및 산하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예술 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자율적인 문화정책 및 예술정책 수립 및 추진
  - 충청북도의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예술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사업
  - 기초예술 및 예술정책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발굴과 양성
  -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 강화

## 2. 충청북도 예술활동의 지속가능성

### 가. 충청북도의 예술인 지원 현황

- 충청북도는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을 통해 ‘일상이 문화가 되는 격조 높은 지역 구현’을 목표로 지역 문화 자치 기반 구축,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을 통한 충북 지역정체성 확립, 생활 기반 문화환경 조성, 지속 가능한 新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 육성이라는 4가지 추진과제를 제안 및 시행하고 있음

[표 3-9]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문화예술 분야 추진과제

추진과제	내용
지역 문화 자치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맞춤형 문화정책, 중장기 정책 수립</li> <li>• 지역 문화 전문인력 실태조사를 시행으로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지원</li> <li>• 지역 문화 사업 통합적 관리·운영 전담 기관(충북문화재단) 지정으로 지역 문화 사업 추진 기반 마련</li> <li>• 충청북도 내 자율적 문화정책 추진 기반 조성 계획 수립(충북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li> <li>• 예술인과 예술 단체의 창작활동 지원(지역 문화예술의 창작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li> </ul>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을 통한 충북 지역정체성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유·무형 문화재 발굴·수집·보존 필요성으로 다양한 기관 협업 체계 마련</li> <li>• 지역문화유산의 미래 자산화</li> <li>•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연구개발 체계 구축</li> <li>• 도시재생과 연계한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li> <li>•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여 문화도시 지정 근거 마련</li> <li>•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li> </ul>
생활 기반 문화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들의 일상적 문화 활동 지원(생활문화센터)</li> <li>• 단계별 생활문화동호회 지원방안 마련</li> <li>• 생애주기별 문화복지 정책을 수립</li> <li>• 취약한 문화 소외 지역을 대상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li> <li>•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li> <li>•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다양화 및 지역별 균형 있는 가맹점 확보, 선정</li> <li>• 충북도립도서관 건립</li> </ul>
지속 가능한 新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플랫폼 활용으로 새로운 문화 수요 대비</li> <li>• 스마트 공연·전시장 구축</li> <li>• 디지털 환경 적응을 위한 예술인 교육</li> <li>• 새로운 Culture Technology 실현을 위한 문화벤처 육성</li> </ul>

-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에 따라 충청북도 예술인 지원정책은 충북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있는데 충북문화재단은 예술인 지원정책을 사업 부문(문화예술창작,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향유, 문화복지, 연구·교류)과 공모 지원으로 운영

[표 3-10] 충북문화재단 지원정책

분류	내용 <sup>7)</sup>
문화예술창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li> <li>공동창작작품 지원 사업</li> <li>창작거점공간 지원 사업</li> <li>충북특화공연작품개발 지원 사업</li> <li>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li> <li>우수창작활동지원사업</li> <li>청년예술단체 지원 사업</li> <li>청년예술가 창작 지원 사업</li> <li>충북미술가 서울전시회 지원 사업</li> <li>국제지원사업</li> <li>충북형기획 지원 사업</li> <li>시군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li> </ul>
문화예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교육거점 지원 사업</li> <li>꿈다락토요문화학교 지원 사업</li> <li>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li> <li>헬로우아트랩사업</li> <li>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li> <li>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li> </ul>
생활문화향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문화이용권사업</li> <li>예술동호회활동 지원 사업</li> <li>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li> <li>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사업</li> <li>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li> <li>콘텐츠 누림터 운영강화사업</li> </ul>
문화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인파견지원사업 - 예술로(路)</li> <li>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 사업</li> <li>무지개다리사업</li> <li>충북 무지개다리사업</li> <li>예술활동증명 등록지원 서비스</li> <li>예술인고용보험 안내</li> </ul>
연구·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인 실태조사</li> <li>충북 문화다양성 실태조사</li> </ul>
공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체 : 전문예술단체 집중지원</li> <li>개인/단체 : 예술창작지원</li> <li>단체 : 청년예술지원</li> <li>개인 : 충북예술가 홍보</li> <li>단체 : 국제교류</li> <li>단체 : 예술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li> <li>개인/단체 : 창의적 온라인 예술지원</li> </ul>

- 충북문화재단 지원정책을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추진과제와 비교하면 충북문화재단 지원 정책이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추진과제의 지역 문화 자치 기반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충북문화재단 지원정책은 최근 문화예술 분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교육 또는 전문인력 유인 등을 정책을 구체화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충북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충북 예술인은 타 지역 대비 소득이 낮고 창작·전시 등의 예술인 활동 공간이 부족하므로 지역 예술인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충북지역 예술인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지역 예술생태계 조성이 선결되어야 함

[표 3-11]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vs 충북문화재단 지원정책 검토

충청북도 종합계획 추진과제	충북문화재단 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문화 자치 기반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교류</li> <li>문화복지</li> <li>문화예술 창작</li> <li>공모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을 통한 충북 지역정체성 확립</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 기반 문화환경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문화향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 가능한 新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교육</li> </ul>

7) www.cbfc.or.kr,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 나. 충청북도 예술인 지원정책 방안

- 2018년 발표된 「문화비전2030」의 '의제6 지역 문화 분권 실현'에서는 “문화 분권은 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고유한 문화양식을 보호·확산하며, 지역 시민들의 문화 향수와 문화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문화정책”이라고 선언하고 아래와 같은 대표 과제를 제안하였음<sup>8)</sup>

1. 지역 문화자치를 위한 기반 조성
2. 지역 문화의 고유성 유지·발전
3. 지역 문화 거점기관 운영 혁신과 지원체계 마련
4. 문화 협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 구축
6.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 〈2022 충청북도 예술인 실태조사〉에서는 예술 활동을 위한 창작/연습 공간 등 예술 활동 공간의 부족, 예술 활동 복지지원 정책에 대한 불만 인식, 예술인의 낮은 정규직 비율, 코로나 19로 인한 예술인 소득 감소 등 전국에서 최하위권인 지역 문화 수준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타남
- 자문위원, 조사결과, 기존의 정책 방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대 영역 8개 추진과제를 충청북도 예술인 지원정책(안)으로 선정함

[표 3-12] 충청북도 예술인 지원정책(안)

영역	추진과제
예술활동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 공간의 목적 및 기능에 따른 세분화와 재배치</li> <li>◆ 온라인 콘텐츠 전용 오픈스튜디오</li> </ul>
문화자치 협력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활동 지속성을 위한 기초 문화재단 역할 강화</li> <li>◆ 예술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축</li> </ul>
예술인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인 전문성 강화 및 지역 연구 프로젝트 지원</li> <li>◆ 예술인 실태조사 정례화</li> </ul>
예술인 복지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북도 예술인 지원 중장기 계획</li> <li>◆ 예술인 유형별 법률·행정서비스 지원제도 마련</li> </ul>

8) 새문화정책준비단,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2018, pp. 239~240.

[표 3-13]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안)

4대 전략	13대 정책과제
① 예술 활동의 지속을 위한 삶의 기반 조성	(1) 예술인의 창작 안전망 강화 (2) 예술인의 생활 안전망 강화 (3) 예술 활동의 제도적 기반 개선
② 예술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질적 권리보장	(4) 안전하고 공정한 예술 활동 환경 조성 (5) 신속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 체계 마련 및 운영 (6) 예술인의 실질적 권리보장을 위한 예술인 참여 확대
③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 및 전문역량 강화	(7)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강화 (8) 예술인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 직업적 활동의 지속성 확보 (9) 원스톱(One-stop) 예술인 지원시스템 구축
④ 예술인 복지정책 추진 기반 체계화	(10) 중앙-지역의 역할 정립 및 협력체계 구축 (11) 예술인 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축 (12) 예술인 복지재원의 안정적 확보 (13) 예술인 복지정책 평가·환류 기반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안)>을 기반으로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과 충북문화재단 지원정책을 재구성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14]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충북문화재단 정책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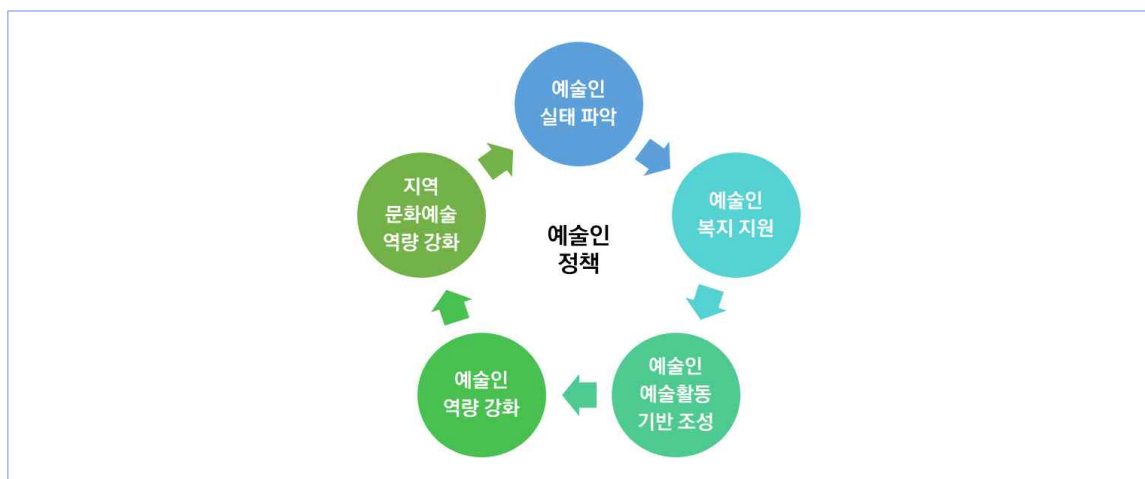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정책과제	충청북도 종합계획 추진과제	충북문화재단 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 활동의 지속을 위한 삶의 기반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문화 자치 기반 구축</li> <li>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을 통한 충북 지역정체성 확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창작</li> <li>연구·교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질적 권리보장</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 및 전문역량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 가능한 新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창작</li> <li>문화예술교육</li> <li>문화복지</li> <li>공모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인 복지정책 추진 기반 체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문화 자치 기반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교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 기반 문화환경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문화향유</li> </ul>

\*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과 비교하여 충청북도 종합계획 추진과제 및 충북문화재단 지원정책은 중복될 수 있음

## 1) 충청북도 예술인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 **(실태조사 결과)** 예술인 복지 사업이 높은 필요도에 비해 낮은 인지율을 보임
  - 주요 예술인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 수준과 필요 수준과 높은 프리랜서 비율을 고려할 때 (충북 71.8%, 충남 67.8%, 대전 41.0%) ‘예술인 복지 사업’이 필요함
- **(도내 현황)**
  -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2021)
  -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21-2040)
- **(추진과제 방향)** 조례와 충청북도 종합계획 추진과제 명시된 사항을 구체화
  - 조례와 충청북도 종합계획 추진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논의
  - 예술 활동에 대한 실질적 권리보장 등 조례와 충청북도 종합계획 추진과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며, 최근 문화예술 분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교육 또는 전문인력 유인 등의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정책과제와 비교하면 <충청북도 종합계획> 추진과제와 충북문화재단 지원정책은 ‘예술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질적 권리보장’ 정책과제를 보완해야 함. 즉,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표준계약서 검토지원, 권리구제지원이나 예술인 정책 의견수렴 등 취약한 부분의 보완이 필요함
- 예술인 관련 정책은 단순히 예술인 개인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예술인 관련 정책 순환체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술인의 예술 활동 기반 조성을 통해 예술인의 역량 강화와 지역문화역량 강화, 그리고 지역민의 문화예술향유, 예술인 예술 활동 기반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띠

[그림 3-18] 예술인 관련 정책 순환체계



## 2) 예술인 유형별 법률·행정서비스 지원제도 마련

-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예술 프로젝트 중단/취소/연기 경험률 62.8%
  - 코로나19로 인해 예술 프로젝트 중단/취소/연기 경험률은 공연예술 분야(75.8%), 30대 이하(73.2%)와 40대(72.4%), 장애 예술인(77.4%) 분야에서 높음
  - 지난 3년간 예술 활동의 '활동 기간', '보수' 등과 관련된 계약 체결 건수는 평균 7.3건, 이 중 서면계약 건수는 평균 6.4건(87.7%)
  - 코로나19 이전 대비 예술인의 1년간 총소득 18.7% 감소  
(코로나19 이전 평균 1,768만 원, 코로나19 이후 평균 1,437만 원)
  - 코로나19 이전 대비 예술인의 1년간 예술 활동으로 인한 소득 22.2% 감소  
(코로나19 이전 평균 897만 원, 코로나19 이후 평균 698만 원)
- (법률·행정제도)
  - 예술인 복지법
    - (주요 내용) 예술인 지위 및 권리,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실태조사 실시, 문화예술 관련 계약,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역할 등을 포함
    - (관련 조항) 제10조(재단의 사업)의 ①에서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 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주요 내용)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실태조사 실시, 지원사업 전담기관 지정 등
    - (관련 조항)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타 지역 참고자료)
  -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제주예술경영컨설팅 : 문화예술인(단체)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컨설팅으로 저작권 침해, 문화예술단체 세무, 회계 관리, 공연 계약 전담
  - 광주문화재단 : 스트레스 상담·치유, 창업·창작·권익 보호에 관한 행정·법률·노무·복지·의료·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지원해 소통창구를 확대
- (추진과제 방향) 전업, 겸업, 생활, 장애 예술인 유형별 컨설팅 지원
  - 예술인 유형이 다양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피해사례 발굴 및 사전 방지책 마련
  - 피해사례 발생 시, 이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 필요



### 3) 전문성 강화 및 지역 연구 프로젝트 지원

- **(실태조사 결과)** 전문적인 예술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
  - 정규교육 외 예술 관련 교육에 대해 경험률은 60.3%
  - 전문적인 예술교육 필요도 점수는 79.8점(100점 만점), 필요 비율은 84.8%
  - 주 예술 활동 분야는 '미술'(19.5%), '국악'(16.4%), '음악'(15.2), '문학'(13.4%) 등의 순  
(전국 실태조사 : 미술 24.0%, 대중음악 15.4%, 음악 9.3%, 연극 9.1% 등의 순)
- **(도내 현황)**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2022년 공모 기준)
  -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현장역량강화사업, 헬로우아트랩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인력양성보다는 도민 대상의 문화예술 교육 사업이 주를 이룸
- **(타 지역 참고자료)**
  - 서울문화재단의 2021년 융합형 창·제작 사업 : 첨단기술이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새로운 가능성을 이끄는 촉매제로 공존할 수 있도록 4개 대상별 프로그램 운영
    - ① 융합형 문화기획자 : 단계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 ② 청년예술가 : VR, AR, XR 등을 활용한 창·제작 활동과 작업 완성도를 올리는 맞춤형 지원
    - ③ 예술교육가 :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교육
    - ④ 청소년 : 예술가와 함께 AR, VR 등 다양한 미디어를 경험하는 창작 워크숍
- **(추진과제 방향)** 전문 예술인의 실험적인 프로젝트, 생활예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지역 내 연구기관 및 연구인력이 참여하는 정책 및 사업개발 등
- **(전문예술인)** 전문성, 예술성을 기반으로 하는 실험적 프로젝트, 작품의 유통을 위한 충북형 아트페어 및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등 유통경로 및 지역 예술시장 형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생활예술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예술의 일상성을 위한 지원의 지속성 확대
- **(전문예술인력)** 정책 전문가, 문화예술 연구기관의 연구원, 문화예술 현장의 기획자 등의 활동 기반을 조성이 필요함
  - 전문가 집단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기초예술 육성과 문화산업 발전 등 충북형 문화예술 정책의 기초 및 중장기 계획을 위한 거버넌스를 지향함

#### 4) 예술인 실태조사 정례화

- **(실태조사 결과)** 충청북도에서 처음 진행된 실태조사
  - 2021년 충북 예술인 실태조사가 최초 진행된 실태조사
  - 기본계획 및 조례 등을 위한 산발적인 연구들은 있었으나, 정례화된 연구는 없었음
- **(도내 현황)** 프리랜서 비중이 높고, 예술 활동이 다소 소극적
  - 프리랜서 비중 : 71.8%(충남 67.8%, 대전 41.0%)
  - 3년간 예술작품 발표/참여 횟수(10회 초과) : 33.4%(충남 41.9%, 대전 39.3%)
  - 총 활동 기간(20년 이상) : 33.7%(충남 44.9%, 대전 34.1%, 강원 35.1%)
  - 개인 창작 공간 보유율 : 34.9%(충남 45.4%, 대전 37.6%, 강원 47.8%)
  - 총소득 : 1,437만 원(충남 2,170만 원)
- **(타 지역 참고자료)**
  -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예술인 실태조사는 2015년, 2018년, 2021년 3년 주기로 진행
  - 도단위에서는 경기도가 2015년(경기북부), 2019년(경기도 전체), 2020년(성남시) 등이 지역별로 나누어 진행
  - 이외의 지역은 2020년부터 실태조사 시행

[표 3-15] 지역(도단위)별 예술인 실태조사 시행 현황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2021			○			
2020	○(성남)	○		○	○	○
2019	○					
2015	○(경기북부)					

- **(추진과제 방향)**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충북도민 문화예술 활동조사와 비정기적인 대상별 실태조사 병행함으로써 후속 연구자료 확보 및 정책 기초자료 확보
  - 예술인 실태조사 정례화 및 충북도민의 문화향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충북도민 문화예술 활동조사 필요하며 연령, 활동지역 및 장르 등 인구통계적 특성과 조사항목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충북문화예술 생산과 소비와 관련된 지표개발로 이어져야 함
  - 중앙에서 실시하는 예술인 실태조사의 주기가 3년임을 고려할 때, 주기는 3년마다 시행하되, 중앙의 실태조사와 시행연도가 겹치지 않게 함으로써 실태조사 공백기를 보완
  - 충북 예술인 실태조사가 없는 해에 비정기적으로 특정 대상별(장애 예술인, 신진예술인 등) 심층 조사연구를 통해 대상별 이슈 발굴 노력 필요

## 다.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 2011년 이전 우리나라 예술정책은 국민의 예술 향유와 보급이 목표였지만, 2011년 이후 예술인 권익 보호 정책으로 선회하여 예술인의 다양한 복지지원으로 확장하였음
- 이러한 정책 기조의 변화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2011년)이 근거가 되고 있으며, 당해 법은 예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되는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로의 역할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2012년)되면서 이후 지역마다 예술인과 예술생태계 안정을 위한 복지지원센터설립을 추진함
- 지역별 예술인 복지지원센터는 「예술인 복지법」과 지역 조례<sup>9)</sup>를 통해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9) 2013년 10월 30일 제정된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설립. 이하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 2013-10-30 조례 제45호 참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해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진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4조의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예술인의 복지 실태 및 근로 실태의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4.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①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문화 예술 진흥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문화예술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문화예술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있으며, 지역문화재단 하위 부서나 지역문화재단과 별개의 센터로 운영되는 사례도 있음

- 예술인 복지지원센터는 문화예술 분야 전체를 포섭하는 문화재단과 달리 예술인 또는 예술 단체의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보조하는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이는 지역마다 예술생태계 선순환을 마련하는 효과적 결과로 나타남
- 지역별 예술인 복지지원센터는 모두 7개로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 『경남예술인복지센터』, 『경기예술인지원센터』, 『대구예술인지원센터』, 『전남예술인복지지원센터』,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순서로 개소함<sup>10)</sup>
- 한편 센터설립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마다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이나 건의 사항이 예술인 복지지원에 대한 현행 정부 정책의 흐름과도 결부된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2020 충남 예술인 실태조사>에서는 예술인복지와 처우 개선을 위해 ①창작활동의 공간 확보를 통해 예술 관련 발표 기회 제공 ②낙후된 공간을 재생하여 신인 예술인 발굴과 예술 관련 발표 시 일반인 관람 기회 제공 ③서울 대학로처럼 연극 등의 전용 극장 설립 ④각 시군에 예술회관 건립 추진을 건의하였음<sup>11)</sup>. 이는 예술인 대부분이 국민의 예술 향유와 보급에 더해 예술을 창작하거나 이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의 중요성과 예술인에게 초점을 맞춘 복지지원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로 나타남
- <2019 대전 예술인 실태조사>에서는 예술인복지 및 지원 사업에 대해 예술 활동을 위한 작업 공간의 중요성, 작업 공간과 시설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작업 공간 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sup>12)</sup>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 예술인을 위한 복지지원으로 활동 기반이 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결과로 분석됨
- (도내 현황) 예술인 복지지원센터는 없으며, 현재 문화재단 내에서 문화복지TF를 운영 중임
  - 2022~2025년까지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시범운영 및 개설 계획 중<sup>13)</sup>
- (타 지역 참고자료)

제8조(제정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0) 강석태·김선영, 「광역시 예술인지원센터 사업의 차별화 방안고찰」,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10권 제3호, 2021에서는 6개로 조사되었으나 본 조사에서 확인한 결과 최근 『인천예술인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추가하였음

11) 케이스탯리서치, 2020년 충남 예술인 실태조사, 2020, p. 178.

12) 대전세종연구원 등(한상헌·윤설민·이찬우), 2019 대전 예술인 실태조사, 대전광역시, 2019, pp. 92~95.

13) 충북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2030 문화비전 연구, 2020, 5.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2017)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빈집활용 사업, 예술인 컨설팅 매칭 사업, 아카이빙 사업, 성희롱 성폭력 예방센터, 의료서비스 지원 등 10개 사업 시행 (2021년 기준)
- (추진과제 방향)
  - 법률에 따른 조례의 제정으로 관련 사업 근거 마련
  - ◆ 현재 충청북도는 예술인 복지(2021), 문화다양성(2017), 장애인 문화예술(2018)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예술인지원예산의 다변화와 예술현장의 수요충족, 예술의 사회적 참여 및 기업의 사회적 역할 등 관련분야의 사업추진을 위한 충청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함
  - 충청북도 예술인복지지원센터 개설로 예술인 복지 관련 행정조직 일원화
  - ◆ 예술인의 예술 활동 분야와 주기별(예, 초기, 성장기, 유지기 등) 필요한 지원제도를 복지지원센터에 일원화함으로써 선제적 복지지원 체계 마련(예, 초기 예술인 : 지역 멘토 예술인 연계 창작 지원, 생계 지원, 타 분야 예술인과의 융합 창작 지원 등)
  - 예술인 활동 여건 및 지원 서비스 강화로 사회보장 제도 고도화
  - ◆ 예술인복지사업(예, 원로예술인 특화, 청년예술인 특화 등)
  - ◆ 예술인복지서비스(예, 예술인 재교육, 찾아가는 서비스, 예술활동증명, 예술인고용보험안내 등)
  - ◆ 활동지원(예, 예술인파견지원,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등)
  - ◆ 여건지원(예, 예술인 창작준비금 등)
- 위와 같은 지역별 예술인 실태조사를 고려하면 예술인 복지지원센터는 예술인을 위한 창작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 예술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지역 문화 분권의 대표 과제를 실현하려면, 예술인(또는 예술 단체)의 복지지원을 견인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함
- 이에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검토와 타당성 조사 등 충청북도 예술인지원 중장기 계획 구체화가 선결될 필요가 있음
- 충청북도 예술인 지원정책은 예술인 개인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충청북도 도민의 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충청북도 종합계획> 추진 과제와 충북문화재단 지원정책을 결합하고 타 지역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사업과 충청북도 예술인 실태조사 자문회의 의견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은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정책(안)을 도출할 수 있음

[그림 3-19] 충북문화재단 중심의 예술인 복지정책 체계

